

진리의 기둥과 터

Pillar and Ground of the Truth

셋째 천사의 기별 제 24번

영원한 삶

마지막 날 사건들

절제와 부절제의 대쟁투 - 품성 형성과 절제(III)

2019년 기도력 - 마라나타

생명의 소생

박규태



봄이 왔다. 봄이 오면 농부들은 밭에 씨를 뿌리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의 탄생과 자라남과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아력(萌芽力)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요 6:63, 5:24)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실물,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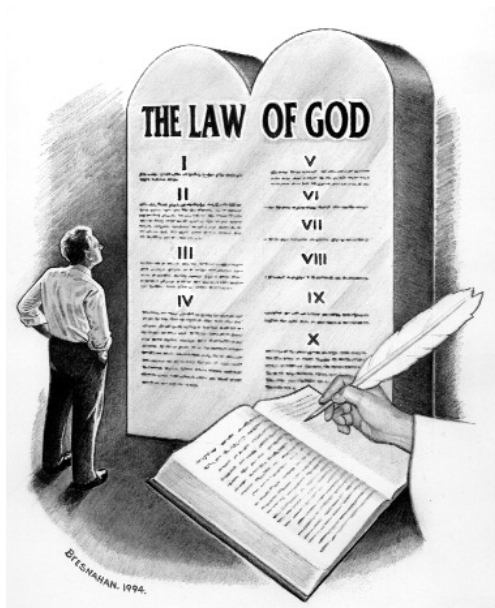
밭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킨다.

“주님께서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속한 청중들일지라도 그러한 상태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은 늘 사람을 세상 사물에 몰입시키는 마력을 깨뜨리시고 그들로 썩지 아니할 보화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결과이다. 좋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것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이 자라게 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마음 밭은 잘 갈려져야 한다. 흙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해 잘게 부서져야 한다. 유해한 사단의 잡초는 뽑아 버려야 한다. 가시떨기에 덮였던 밭은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렘 4:3)고 말씀하셨다.”(실물, 56).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한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막 2:17)고 말씀하셨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어진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실물, 58, 59).

모든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높이 들리
운 영원한 진리의 토대,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
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훈
련하시고, 준비시키신다. 그들은 의견이 일치할 것이
다. 곧 이 사람은 이것을, 저 사람은 전적으로 그것
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앙과 견해를 견지하고, 각
자가 몸으로부터 독립하여 움직이는 불일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두신 다양한 은사들
과 다스림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 신앙의 일치에 이
를 것이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29.

책을 열며 2

1895년 대총회 회보 4

셋째 천사의 기별 제 24번_A.T.존스

진리탐구 12

영원한 삶_원동규

시대의 징조 17

마지막 날 사건들_E.G.화잇

절제와 부절제의 대쟁투 20

품성 형성과 절제(II)_김동춘

2019년 기도력 26

마라나타

셋째 천사의 기별 제 24번



AT.존스

어제 저녁 나는 영적 권세들간의 이같은 싸움에 대한 사상을 담고 있는 예언의 신을 언급하였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하는 예언의 말씀은 영적 권세들간의 싸움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연구중인 내용 즉 승리하기 위해서 오직 정의의 권세를 온전하게 신뢰해야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흥분되거나 신뢰를 저버리거나 그와 비슷한 어떤 상태에 처할 필요가 없고 그저 원칙을 말하고 그것이 세워지도록 하며 원칙이 승리하도록 원칙에 신뢰하여야 한다.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이 때에 하나님의 양들의 목자들은 영적 권세들이 쟁투를 하고 있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종교 세계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감정의 긴장은 인간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사단의 회당으로부터 오는 권세는 세상의 종교적 요소들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안내자로 삼고 교리의 확고한 토대로 삼는 자들을 대항하여 단호한 전투를 치루도록 종교 세계를 인도하므로 사단이 이미 얻어놓은 우세함을 밀고나가는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사람들을 자극시킨다. 순종을 요구하는 여호와와 의 율법, 특히 하늘과 땅을 창조 하사 창조주가 누구임을 선언하는 넷째 계명을 부정하기 위하여 그가 고용할 수 있는 모든 원칙과 모든 능력들을 모으기 위해 이제 사단의 교묘한 노력은 더하여졌다.

불법의 사람은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음녀의 죄악의 잔을 마신 로마와 모든 교회들은 때와 법을 바꾸려하며 자신들을 하

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의 큰 기념일인 제칠일 안식일을 짓밟았다. 안식일은 옛세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지속되어야 하였다.”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 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



식 하셨음이더라.” 거대한 사기꾼의 교묘한 사업의 목적은 하나님의 지위를 빼앗는 것이었다. 때와 법을 바꾸려는 그의 노력으로 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권세를 유지하고 하나님보다 높고자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큰 논쟁이 있다. 여기에 서로 대항하는 두 큰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두움의 왕자 되는 사단이다. 여기에 공개된 싸움이 있다. 세상에는 오직 두 무리만이 있을 것인데 모든 사람은 이 두 깃발 – 어두움의 왕자의 깃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 중 한 깃발 아래 정렬하게 될 것이다.

정의를 위하여 어떤 힘에도 호소하는 것은 싸움에서 누구의 편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인가? 그것은 정의에 대항하는 힘의 편에 즉시 우리 자신을 두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릇된 편이며 우리의 공언이 무엇이든 할지라도 힘을 택하는 것은 그릇된 편에 우리 자신을 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힘을 대적하는 정의, 그 안에 힘이 있는 정의의 원칙에 도달하기 위해 굳건히 불

잡는 것은 신성의 편에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영으로 그의 충성되고 참된 자녀들을 감화시킬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대표자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자들을 단으로 주님의 창고에 묶어 들이시기 위해 우리 세상에서 능력있는 역사하심으로 일하는 대리자가 되실 것이다. 사단도 또한 맹렬한 활동으로 알곡으로 부터 그의 쪽정이들을 모두 거두어 들어 단으로 묶고 있다.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대사의 모든 가르침은 지금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영원한 최후의 결정이 선언될 때까지 결코 끝이 없는 싸움에 종사하고 있다. 예수의 모든 제자들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자. 아! 이 싸움에는 영원한 관심사가 수반되어 있으며 이 쟁투를 대하기 위해 표면상의 사업이나 값싼 경험만 있어서는 안된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훼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원칙이 여기 있다. 어느 누구에나 혹은 누가 반대하는 어떠한 반대에 거스려 비난하거나 훼방하는 송사를 할 것이 우리에게 없음을 알겠는가?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신뢰한다. 권세는 진리안에 있고 우리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 자체의 방어물일뿐 아니라 우리의 방어도 된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자들을 정죄함으로 진리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인간 지성들이 주님의 사업을 할 때 심한 비난이나 훼방함을 거두어 들이도록 명하실 것이다.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없는 자들을 향해 동정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라.”

이것은 모두 같은 말씀이다. 진리 자체가 그 자체의 방어가 된다. 정의 그 자체가 정의의 원조가

되며 그것은 또한 우리의 원조가 되기도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초청에 주의하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멜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그리고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나타내야 한다. 그리하면 주께서는 그의 기별자들 곁에 서실 것이며 그들은 그의 대변자로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대변자가 되시는 하늘의 왕께서 마귀와 싸우실 때 발언치 아니하신 말들을 인간의 입술에 결코 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유일의 안직책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감화를 받는데 있다. 이것만이 사 람을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원칙 가운데 이 문제를 좀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리는 지난번 과제에서 정의를 대항하는 힘이 이 세상의 소유와 통치권이 주어진 자를 속이고 그를 그의 권세 아래 가둠으로 이 세상을 소유하였음을 연구하였다.

이제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사단이 비록 세상을 불의하게 소유하였을지라도, 사단의 손에서 통치권을 되찾기 위해서 어떤 힘의 권세나, 어떤 종류의 무력을 사용하도록 계획하시지 아니하셨다. 힘이나 권력으로 세상을 되찾는데 부정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연구하고 있는 주제다.

나는 여기에서 이것을 말할 것이며 영원토록 그것을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의 우주는 자아 희생이라는 원칙에 의지하고 있다. 이 우주 자체가 존재하도록 붙드는 것은 무저항으로 말미암는 이김 - 정의 자체의 권세의 순수한 원칙으로 이기는 이김을 위한 자아포기의 원칙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주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칙안에서 우주는 구성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다. 복음이 우주를 붙들고 있다고 말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복음의 원칙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복음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신 희생의 원칙인 것이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통치권을 되찾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자체가 의롭지 못한 어떤 힘도 사용하지 아니하셨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모든 통치권과 온 인류를 되찾으시려 하셨을 때 사단과 그의 옹호자들이 공평하지 못하였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셨다.

세상은 아담에 의해 잃어버린바 되었고, 그것이 다시 둘째 아담에 의해 되찾은바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읽은 히브리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이리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할 것을 보지 못하고 … 예수를 보니”

우리는 사람의 처지에 계시고 사람으로서 계신 예수를 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케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람이다. 거기 둘째 아담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에 의해 세상이 잃어버린바 되었고, 사람에 의해 되찾은바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담에 의해 세상이 잃어버린바 되었고 아담에 의해 되찾은바 되었다.

세상을 되찾으신 아담은 첫째 아담이 세상을 잃어버렸을 때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그가 사단의 주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들어가셨을 때 죄의 세력과 영향 아래 타락한 첫째 아담의 후손들의 위치에서 세상을 되찾으셨다. 공개된 육체의 싸움의 전쟁터에 그가 오셨을 때를 말한다. 사실상 그는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전쟁터에

들어가셨으며 사람의 죄 이후에도 그곳에 또한 들어가셨다. 그러나 그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시기까지는 육체를 취하여 실질적인 싸움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그가 세상에 태어나셨을 그 때 인간의 육신이 타락한 가운데 도달한 그 지점에서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사단과 싸움을 싸우기 위해 주 예수께서 공개된 전쟁터에 들어가셨다. 그가 육신으로 오셨을 때 세상에 있던 인성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는 싸움을 싸우셨다.

인성은 결코 더 연약해지지 않을 것이며 세상도 결코 더 이상 악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의 인생이 도달한 상태보다 더 낮은 수준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다. 인성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똑 같은 죄악의 상태에서 그리스도교를 공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세상이 악하였던 것같이 지금 오직 악하기만한 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가 아직 그리스도교를 공언하지 아니한다면, 그가 복음의 원칙에 대해 아무 공언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잃어버린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셔서 복음을 통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의 악한 가운데 복음을 공언하며 자신의 죄악됨을 가리는 형식이나 덮개로 복음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단 한가지 방법인 하나님의 도움을 벗어나서 자신의 죄악을 지지하는 것으로 고통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으로부터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취하며 자신의 죄악을 덮는 덮개와 자기의 사악함을 지지하는 것으로 사용한 그것은 그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자신 안에, 그의 육신 안에서 그 자신의 실질적 육신의 연약함은 더 커진 것이 아니다. 그는 이제 악한 자일 뿐 아니라 위선자가 된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보다 세상은 그 안에서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악하게될 수 있는 유일의 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며 복음을 사용해 세상의 불경건함을 덮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의 방법을 고통하며 자신을 모든 치료제

에 대항함으로 망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체가 가장 연약한 상태일때 그 육체를 쓰시고 사람으로서 사단과 싸움을 싸우셨다. 그러므로 사단 자신은 이런 면에서 불공평하다는 식으로 구원의 방법을 흠잡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모든 축복과 능력과 선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은 사람을 속이고 그를 이겼다. 이제 이 둘째 아담이 사단이 죄로 온 인류를 처하게 한 인간의 육체를 취하시고 그 육신에 이 모든 연약함을 갖고 싸움에 임하셨을 때 사단은 그것이 결코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 “당신은 불공평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우 강한 갑옷으로 무장되었고 공정한 싸움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보호물들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단이 사람에게 가져다준 육신의 바로 그 연약함을 쓰시고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서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매우 연약함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싸우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외치셨다. 그리고 우리의 형님께서 승리하셨다! 그가 승리하셨다! 주님께 감사하자!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자!

이제 다른 면 아니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측면을 보도록 하자. 여러분은 “기도주일 낭독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주제로 된 장을 기억하는가? 그 내용에는 하나님 앞에 모인 아들들과 그들 가운데 함께 참석한 사단에 대해 욕기의 내용이 소개되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세계로부터 온, 다

시 말해 우주의 각기 다른 별에서부터 아담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세상이 그의 권세 아래 있고 그에게 세상의 통치권이 주어짐으로 이 세상의 우두머리로서 선 것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는 가르침이 제시되었다.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한다. 사단이 이 세상에 와서 이 통치권의 우두머리를 그의 권세아래 두므로 이 세상에서 아담이 서야 할 위치에 사단이 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다른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 위하여 왔을 때 사단도 그들과 함께 와서 그의 지배아래 있는 이 세상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 나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여러분이 이 생각에 주목하도록 이것을 단순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제 여기에 그가 통치권을 빼앗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백성을 자신에게 나아오도록 부르셨다. 사단이 이 세상의 지배권을 얻은 그날 사단의 통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대열로부터 백성들이 그와 그의 통치아래 오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항상 많은 자들이 돌아왔다. 그러나 사단은 항상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난하였다. “이들은 나의 합법적인 전리물들이다. 당신은 그들을 빼앗아 가고 있다. 내가 여기에서 그것을 획득하였는데 당신이 공의로 행한 것이 무엇이며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사단은 주장하였다. 이렇게 사단은 이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사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 내어 하나님께로 인도한 모든 자들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숭사하였다.

“이들은 나의 재산입니다. 그들은 나의 합법적인 백성입니다. 그들은 죄로 무거운 짐을 지었고 모두 악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우주 앞에서 그들을 붙들고 있으며 당신은 그들이 항상 선하게 행하였던 것같이 우주 앞에 제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악합니다. 그들은 여기에 남아 있는 우리들과 꼭 같습니다.” 이러므로 사단은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서 밤낮

으로 그의 권위로부터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간 모든 자들을 참소한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가 이것을 행할 권리가 있음과 그것은 공평한 것임을 증명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고려해본 그 연약한 상태에 오셔서 이 잃어버린 통치권의 지위를 정의로 되찾기 위해서 사단과의 싸움에 들어가셨다. 이제 주목해 보기 바란다. 첫째 아담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이 통치권의 지위를 사단은 첫째 아담으로부터 정의로서가 아니라 정의에 대항하는 힘으로 빼앗았다. 둘째 아담이 오셔서 정의를 대항하는 힘으로서가 아닌 힘을 대적하는 정의로서 이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되찾으셨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통치의 주인으로 부활하셨으며 이 세상 뿐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 까지도 주인이 되셨다.

이제 계시록 12장을 보도록 하자.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한 구절이 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실때 그리스도가 태어나자마자 집어 삼키기 위해 사단이 대기하고 서 있는 이상이 제시되어 있다.

7절을 읽겠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9절을 보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

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소하던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자가 쫓겨 났고”

“참소하던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법정에서 다른 자를 고소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미국에서는 검찰관에 해당한다. 독일어 성경에 번역된 것도 똑같은 의미다. “참소하던 자”라는 우리말은 그 의미를 매우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같이 그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헐뜯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단의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상이 아니다. 여기 이 참소자는 검찰관로써 법정에 오는 자를 말한다. 여러분은 그 상태를 알 수 있는가? 여기에 이 통치권을 갖고 있던 사단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돌아서도록 부르시고 돌아선 자들을 받으신다. 그러나 사단은 이 모든 백성들의 권리를 주장한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들어가 미국에 있는 탈주 노예법 아래 노예 소유주들이 행했던 것처럼 검사로써 그의 백성들을 기소할 것이다. 그는 그 법정에서 모두를 기소할 것이고 그들이 다시금 그의 권위아래 되돌아 와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을 그와 같이 빼앗아 간것은 공의롭지 못하고 바른 것에서 벗어난 일이라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한 정의의 외관상 그림자와 함께 그 논증을 제시할 만한 여지가 있었는데 이는 논쟁은 아직 시작하지 아니하였고, 전쟁도 치루어지지 않았고 온전한 승리를 얻으므로 검찰관로서의 그의 논증과 그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속은 확실하였으며 승리도 보장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안전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아직도 육신으로 공개된 싸움에서 증명되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어떤 구속의 약속이 결코 없는 것과 같이 사단의 권세를 통하여 많은 시험들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심하게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가 직면해야 할 수 많은 시험들이 있었으며 결코 구속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지 않은 것과 같은 실제적인 시험

들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정말 그렇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시험에 대해 보호하심을 받았고 그 싸움은 진정한 것이 아니었으며 진짜 보다는 가상의 시험이었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나라의 검찰총장처럼, 사단이 제시하고 있는 논쟁이 불의한 것임을 드러내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합법적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단의 영토에 오셔서 사단이 타락시킬 수 있는 가장 타락한 인성을 취하셨다. 이 인성으로 그는 사단의 장소에서 사단을 만나시고 힘을 대적하는 정의 자체를 신뢰함으로 오는 능력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대항해 싸워 그를 온전히 이기셨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의 그림자도 쓰지 아니하셨다. 그는 힘을 대적하는 정의의 신성한 능력과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신뢰하셨다. 그리고 그는 정복하셨으며 그리하여 정의로 이 통치권의 머리가 다시 되시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자와 주권의 구속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의 형제들을 참조하던 자가 “내어쫓기니”라고 한 말씀이 헬라어에는 법정으로 와서 기소하던 검찰관이 이제는 더 이상 소송할 만한 아무 사건이 없다는 사상을 나타낸다. 그는 거절당하였다. 그는 논증할 아무 여지가 없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의 대언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정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다. 주님께 감사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는 법정에 형제들을 참조하는 검찰관이 있어서 그의 백성들이 그의 통치를 떠나 다른자에게 갈 때 그의 통치 아래있는 백성들의 그의 합법적 권리를 호소하였다.

그는 그 논증을 정의의 그림자의 모양으로 제시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의 통치, 그의 권위가 아직 확실하게 겨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의롭고 공평하게 그 길의 모든 발걸음마다 겨루시고,

사단이 그 싸움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도록 매우 공평하게 하셨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법정에서 그 위치에 검찰관이 아닌 우리의 대언자로서 서신다. 그리고 그가 정의에 의해 법정에 대언자로서 오실때 다른자 곧 참조자와 검찰관인 그는 거절당할 것이다. 그는 내쫓김 당할 것이다. 그가 참조하려 하던 자들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기쁜일이 아닐 수 없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직도 참조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는 검찰관으로서 그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가 법정에 서실때 그 검찰관은 거부되고 밖으로 나가게 하며 내쫓긴바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요, 나는 이 사실이 기쁘다. 이것이 법정에서 대언자의 가치인 것이다. 그는 검찰관을 내쫓으시고 그의 소송을 제어하심으로 그가 법정에서 설 곳이 없게 하신다. 주님께 감사하자!

이제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지난번 저녁때 하늘에 계신 주 예수께서는 모든 면에서 그가 전과 결코 같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어떤 분들의 마음에 일어난 의문에 대한 답이다.

질문은 이것이다. 성경 말씀이 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날 저녁 읽었다. 우리는 그 구절을 그 문제에 적용하였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를 그는 지금 가지고 계시며 영원히 그의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보 331과 332 페이지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굴욕(humiliation)에 대해 내가 읽은 예언의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본체로 태어나신 그가 인간의 모양을 취하셨다. “육신 가운데서도 내내 그는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모양을 벗어버

리시고 사람의 모양과 형태를 취하셨다.”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그는 잠시동안 포기하셨다.”

차이점을 주목해 보기 바란다.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그는 잠시동안 포기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 그 자체는 영원토록 포기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이며 그대로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신 분이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것이다. 그러면 회보 382페이지에 예언의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인류의 모양을 쓰시고 …” 여러분은 알겠는가? 차이점은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광이 머물고 그것으로 영광이 나타나고 반사되는 모양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 사상과 통하는 다른 것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그는 그것을 버리셨다. 그는 자신을 비우셨다. 불란서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그가 자신을 소멸시키셨느니라” 그것은 너무 강하게 번역된 것이 아니다. 그가 전에 가졌던 모양에 대해서 그는 자신을 소멸시키시고 그 모양으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와 영원토록 우리 인류의 모양”을 쓰셨다.

그 영광 곧 그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계셨을 때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우리 인류의 모양에 가져오셨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리고 인간의 모양에 인간의 육신에 주셨다. 그리스도가 낮추어지는 대신에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되었고 신성이 낮추어지고 강하게 되는 대신에 인성이 높임을 받고 영화롭게 되었다.

그를 우리가 있는 곳에 영원히 내려오시게 하는 대신에 그것은 우리를 그가 계신 곳에 영원히 올리우셨다. 그에게서 영광을 앗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처한 곳에 그가 거하도록 하는 대신에 이 영광을 잠시동안 버리시고 우리가 되었으며 우리의 모양을 영원토록 취하셔서 그가 이 모양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안에서 그가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에 이르도록 높임을 받게 되었다.

자, 여기에 좀더 생각해볼 것이 있다. 어떤 모

양으로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셨는가? 우리 인류의 모양, 나의 모양, 나의 본성 그리고 여러분의 본성으로 싸우셨다. 하나님의 우주의 얼마가 그 싸움에 관여되었는가? 얼마나 그 싸움에 관계되어 있는가? 모든 것이 관계되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육신과 모양 안에서 싸움은 계속되었고 거기에서 전쟁이 치루어졌고 거기에서 승리를 얻었으며, 그것은 온 우주를 연관시키는 것이 된다. 이 싸움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온 우주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이 세상에 오셔야 했으며 우리의 모양과 본성을 취하셔야 했는데 이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모양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본성 가운데 그 목적이 겨루어 졌으며 그곳에 모든 것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그가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의 모양과 본성을 취하시고 이 모양과 본성에서 싸움을 싸우시고 이 모양과 본성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심을 얻으셨다. 어떤 모양과 본성에 승리가 속하여 있는가?

자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결된 우리의 모양과 본성에 승리가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싸움, 이 승리는 우주에서 아담이 있던 곳이나 혹은 그가 있어야 할 곳 일 뿐만 아니라 신성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우리를 이끌어 준다. 아,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이것은 정말 그렇다. 그리고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 그것이 진실되다는 것이다.

우리는 죄가 들어온 불행을 바라보므로 이 영광을 시야에서 놓칠때가 너무 자주 있다. 죄의 등장은 불행이었다. 죄가 우주에 들어 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러므로 전쟁이 우주를 위해 이 세상에서 치루어져야 했다는 것은 불행이었다. 그러나 세상에 죄가 닥치고 이 세상을 휩싸이게 한 것은 여러분과 나를 관련시켜 여기 우리의 본성 가운데 우주를 위한 싸움을 싸우게 하였으며 그리고 승리는 이미 얻어졌고 우주를 위해 우리가 이 승리의 몫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전

혀 불행만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을 가장 당당한 승리로 바꾸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알겠는가? 구속의 경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가장 큰 불행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실 때에는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이 가장 당당한 승리로 바뀌게 하실 수 있다. 우주에게 있어 이 가장 큰 불행을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위해 가장 큰 승리로 바꾸셨다. 아! 하나님께서는 불행을 우주의 비할 바 없는 영원한 승리로 바꾸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양의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 인류의 모양을 취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본성의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 인류의 본성을 취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므로써 인류에게 신성을 가져다 주셨다. 그렇게 하시므로 인성이 사단과 죄를 이기도록 하셨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대항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라고도 말씀하셨다. 우리가 처한 곳에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거하시게 하는 대신에 우리를 그가 거하시는 곳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셨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늘 법정에 대언자가 계시는데 그는 모든 가능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우리의 대언자로써 거기에 계시며 하나님 앞에 밤낮 우리를 참소하던 검찰관을 내쫓으셨다. 그는 우리의 소송을 이기시는데, 이는 그가 이미 그것들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양을 취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의 안에서 우리도 함께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그분께 무릎을 꿇기를 기뻐하자. 그리고 그 때에 우리는 그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기를 또한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하기를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주 앞에서와 우주를 위해 승리의 면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관 씌어질 그날에 루스벨로부터 가장 나중된 자에 이르기까지 그를 거절한 모든 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날에 우주에 있는 모든 입은 진리의 신성함과 힘을 대적하는 정의의 원칙의 영원한 의를 시인할 것이다. 



영원한 삶



원 동 규

신성이신 창조주께서 인성이신 예수로 탄생한 비밀

사랑의 종교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요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 4:8)고 하였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연구한다면 그 내용을 한 마디로 줄여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준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아닌 일반 종교, 특히 우상을 섬기는 자연 종교에 있어서 신(神)을 몹시 두렵고 엄한 존재로 인정한다. 신을 소홀히 하거나 그 행위에 잘못이 있는 자는 곧 엄한 저주를 받고 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믿는다. 즉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는 복을 받기 위함보다도 신의 진노와 저주를 면하기 위하여 신을 섬기는 이들이 많다. 세상의 허다한 종교와 그 신자들은 대개 이러한 경향을 가졌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고 가르치고 우주의 지배 원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밀접한 관계로써 표현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하늘과 땅처럼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나타낸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게 되었으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하나님과 결합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밀접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가르친다. 요한은 이 고상하고 오묘한 뜻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요일 3:1, 2)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감격과 세상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함에 대한 애석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나타나 있다. 과연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그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앞길을 열어 주신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을 지라도 저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큰 특권으로 알고 스스로 만족함과 기쁨을 느낀다.

지극한 사랑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우리, 죽고 멀하여질 수 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같이 계셨던 당신의 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 인

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게 한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큰 희생과 지극한 사랑에 대하여 무한한 감격을 느끼게 된다. 요한은 이 사실을 기록하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고 하였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불순종함으로 멸망할 자를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을 실제로 성취하신 이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를 위한 사랑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 주지 않을 수는 없었던가? 대저 공의는 사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한번 맺은 언약, 한번 세운 법은 다시 고치지 않는 것이 공의이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는 원칙을 어겼으니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불순종의 씨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불행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다. 죄의 근성은 그 후손들에게도 유전되어 그들도 역시 죄를 범하니 죄인 아닌 자는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은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말았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멸망의 운명을 걸머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인류,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사람의 대상자가 되어 주기를 기대했던 그 인류가 멸망하고 마는 것을 차마 그냥 두실 수 없으셨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값을 대

신 값고 인류의 죄의 근성을 근본적으로 고쳐 주셔서 인류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 계획이 세워졌다. 곧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 인류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공의

를 살리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신 오묘한 진리이다.

유일한 방법

인류를 구원하는 데는 오직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쓰라린 경험을 맛보신 것이다. 어찌하여 이 길밖에 없었던가?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자가 없다. 이는 죄인 아닌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으로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할 자도 없다. 이는 전 인류의 가치와 대등한 가치를 지닌 자가 인류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비록 공자나 석가모니나 모하메드나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성인일지라도, 그들 역시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예로서, 모테로부터 죄의 유전과 품성을 받아 가지고 나왔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선(善)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죄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보통 인간과 다르시다. 그분은 신성(神性)으로서 인성(人性)을 쓰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성자(聖者)로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 그는 곧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의 손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그분 밖에는 우리 인간의 잘못된 심성을 바로잡아 줄 이가 없으며, 그분 이외에는 우리 죄를 대속해 줄 이가 없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 6~8)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 1:15~17)

그런 까닭에,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수 천 명의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담대히 이렇게 외쳤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를 죄와 죄의 결과에서 건져 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바 된 인류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성을 쓰고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공부해 보자.

처녀 마리아의 잉태

아시아의 맨 서쪽 지중해 연안에 팔레스틴이라는 지방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천 년 전에 이 지방에 유대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 북쪽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 ‘요셉’이라는 목수가 살았는데, 그는 같은 마을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와 약혼을 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요셉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 왔다. 이 사연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마 1:18~20)

여기에 자세한 말이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천사는 물론 요셉이 이해할 만큼 마리아의 잉태한 바는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곧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바라던 메시아임을 분명히 인식시켰을 것이요, 또는 이 사야가 이미 7백 년 전에 예언한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는 말씀을 상기시켜 그로 의심을 버리게 하고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했을 것이다(‘메시아’는 히브리어로, 헬라어의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란 뜻이니, 유대인들이 흔히 구주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하였다(예수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라’는 것이

다). 이에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 데려 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한편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러한 기별을 전하였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눅 1:28, 31)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34, 35)

마리아도 처음에는 이상히 생각하고 두려워했으나 천사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스라엘 온 민족이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 몸에서 나시겠다는 귀한 허락을 믿게 되어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하고 공손히 그 신앙을 표명하였다.

현대의 과학으로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는 이러한 초과학적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도 해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허다하다. 그러면 우리가 해명할 수 없는 일을 모두 부인해도 좋은가? 부인한다고 그것이 사실을 바로 판단하는 것이 될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든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우리는 차라리 다윗과 같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시 139:6)라고 겸손히 고백함이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유대 나라 베들레헴에서 호적 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때였다.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젊은 부부 요셉과 마리아는 새로 호적을 하기 위하여 본적지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러나 여행자가 너무 많이 모여들어 여관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집과 마을이 모두 사람으로 차고 넘쳤다. 이 젊은 부부는 머무를 곳을 얻지 못하여 어떤 집 외양간에서 밖을 지내게 되었다. 마침 그 밤에 마리아는 산기가 있어 아기 예수를 낳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그때에 베들레헴 성 밖 언덕에는 양떼를 지키며 경야(經夜) 하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당시 세상의 어지러움을 탄식하며, 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 그 빛난 광채가 두루 비치니 저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눅 2:14) 고 하였다.



넓은 들과 산골짜기를 통하여 멀리 퍼진 이 찬미 소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르는 축복과 평화를 노래한 것이다. 과연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과 화평이 있다. 그들의 가정이나 사회에도 평화가 깃들 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다툼이 자취를 감추고 오직 화평만이 있게 될 것이니, 예수님이야말로 ‘평화의 왕’이시다.

목자들은 천사의 지시대로 베들레헴 성으로 돌아가,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보고 그에게 공손히 절하였다.

또 먼 동방 나라에서는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구주가 나실 것을 알고 유대 나라 베들레헴으로 찾아와, 구주로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등 매우 값진 예물을 드리고 갔다. 그들은 옛 글 가운데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민 24:17)라는 말씀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명상의 말씀

“오늘날 하늘과 땅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던 그 때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인간은 옛날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대낮에 천사들을 만나 포도원과 밭에서 하늘 사자들과 이야기하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권고(眷顧)의 대상이다.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 하늘 궁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함께 할 것이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함이 없는 주제이다.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롬 11:33)이 숨겨져 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한다. 사람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그의 임재 앞에 견책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놀라운 겸비의 시초에 지나지 않았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천 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시대의 소망, 48, 49.

“거의 6천년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미구에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고 사람들을 그의 사슬에 굳게 매어 두기 위하여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구주의 중보 사업이 끝나고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게

될 때까지 사람들을 암흑과 완고한 상태에 붙들어두는 것이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다.

사단은 자기의 권세를 거절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을 때, 세상과 교회에 냉담한 상태가 팽배해 있을 때 별반 주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들을 자기 손에서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영원한 사물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부르짖을 때에는 사단이 벌써 와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다투고 성령의 감화를 소멸시키고자 노력한다.

성경은 어떤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단도 그 가운데 와서 참석했다고 말한다(욥 1:6 참조). 사단은 영원하신 왕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악한 술책을 쓰기 위해서 참석했다. 사단은 똑같은 목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에 참석한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는 노련한 장군처럼 미리 계획을 세운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그는 사람들 앞에 제시될 문제에 관하여 주목한다. 그러고는 그가 속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못할 환경을 만들고자 온갖 계책과 수단을 쓴다. 경고가 가장 필요한 자는 꼭 참석해야 할 어떤 중대한 일을 보도록 만들고 또한 그 이외의 어떤 방법으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 -각 시대의 대쟁투, 518, 519.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의 지상에서의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그의 영광이 가리워졌던 것은 그의 외양의 위엄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혹물로 사람들을 그의 편

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메시아의 품성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었던 바,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에 기초해서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천사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륜을 보고 기이히 여겼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성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주목하여 보았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땅에 왔다. 다른 민족들은 우화를 경배하고 거짓 신들을 경배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언의 빛이 비치었던 땅에 천사들이 왔다. 천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 갔다. 제사장 사가랴가 제단 앞에서 봉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 이미 발표되었다. 이미 선구자가 출생하였고 그의 사명이 이적과 예언으로 입증되었다. 그의 출생에 대한 소식과 그의 사명의 놀라운 의미가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들의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시대의 소망, 43, 44.

“하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보았다.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백성으로서 보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임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양을 가리켰지만 거기서까지도 그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유대나라의 제사장과 교사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시대의 소망, 44. 



마지막 날 사건들

E.G.화잇

남은 자손의 경건의 생활

두 국면의 삶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직전인 이 시대에 침례 요한이 행한 바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여호와와 큰 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남녀 일꾼들을 부르고 계신다. ... 요한이 전했던 그런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요한과 같은 영적인 경험을 해야 한다. 그와 동일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 보아야 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아를 잊어버려야 한다. -교회증언 8권, 332, 333(1904).

하나님과의 교통은 품성과 생애를 고상하게 해줄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최초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일하는 사람에게 다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능력을 줄 것이다. 이 능력이 그 자신에게서 박탈당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두 국면의 생활-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활, 즉 조용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치료봉사, 512(영문)(1905).

기도와 노력, 노력과 기도가 그대 생애의 일상 업무가 되어야 한다. 그대는 능률과 찬양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기인하는 것처럼 기도해야만 하며 또한 의무는 모두 그대의 것인양 노력해야만 한다. -교회증언 4권, 538(1881).

아무도 기도가 없이는 하루 혹은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각 시대의 대쟁투, 530(영문)(1911).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곧 기도하는 일조차 그만두게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101(영문)(1892).

그리스도 안에 확고하게 뿌리내림

폭풍은 다가오고 있으며 그 폭풍은 각자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졌는지 시험할 것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가 박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혹종의 오류에 휩쓸려 길을 잃게 될 것이다. -복음전도, 355, 356(1905).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 데 매일 한 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조목 한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리 속에 그릴 것이다. -시대의 소망, 83(영문)(1898).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결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324(영문) (1898).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우리의 명상과 대화와 가장 큰 즐거움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정로의 계단, 103, 104(영문) (1892).

성령께서 형성하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께서 끌지우시도록 굴복되기까지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성령께서는 새롭게 된 영혼이 그들의 모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신다.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께 대한 증오가 믿음과 사랑으로 변하며 교만이 겸손으로 변화된다. 그 영혼은 진리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며 그리스도께서는 품성의 탁월함과 완전함으로 인하여 존귀를 받으신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152(1896).

필요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 충동이나 정신적 능력이나 마음의 경향이 아니요 오직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이다. -부조와 선지자, 421(영문) (1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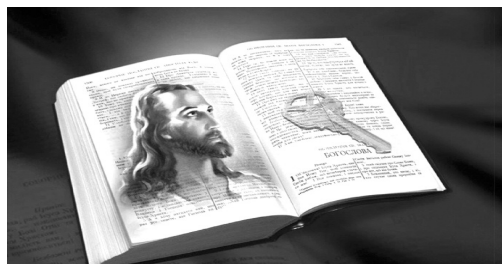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 비추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며 우리의 다양한 필요들을 채우는 일을 도와주신다. 그러나 그 마음은 부단히 하나님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 세속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면, 우리에게 기도할 의욕이 없고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154(1904).

성경 연구의 필요성

비록 새롭게 된 심령이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의 소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아무도 회심한 상태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215(1897).

그대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실체

화되어야 한다. 진리의 산 증언을 굳게 붙들라.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라.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의 만세 반석이 되실 것이다. -복음전도, 356(1905).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곧 일어날 놀라운 일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이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해야 한다. -선지자와 왕, 626(영문) (1914).

성경의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히 한 자들 밖에는 최후의 대쟁투를 견딜 자가 없다. -각 시대의 대쟁투, 593, 594(영문) (1911).

오직 성경을 열심으로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들만이 온 세계를 미혹시키는 속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25(영문) (1911).

우리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계시된 진리의 원칙을 조직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원칙은 세상에 다가올 사건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다니지 않도록 방어해 줄 것이다. -교회증언 5권, 275(1885).

말씀을 암송할 것

매일 여러 차례 귀하고 황금같은 시간을 기도와 성경 연구에 바쳐야 하는데, 영혼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게 되도록 한구절을 암송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교회증언 4권, 459(1880).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은 하늘의 왕께 충성을 바치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표준이다. 그들로 성경을 연구하게 하라. 그들로 성경 구절들을

한구절 한구절 암송함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하라. -오늘의 나의 생활, 315(1887).

그대 주변을 말씀의 벽으로 쌓으라. 그러면 세상이 그것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보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가지고 찾아올 때 “기록하였으되”라는 말로 곧바로 대항하도록 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시험에 대처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신 방법이다. -리뷰 앤드 헤랄드, 1888.4.10.

기억의 창고에 귀중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걸어 놓으라. 그것은 은이나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한다. -교회증언 6권, 81(1900).

일할 때에도 주머니에 작은 성경을 지니고 있으라. 그리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그 귀한 약속들을 암송하라. -리뷰 앤드 헤랄드, 1905.4.27.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억 속에 새겨진다면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원고모음, 760, 24(1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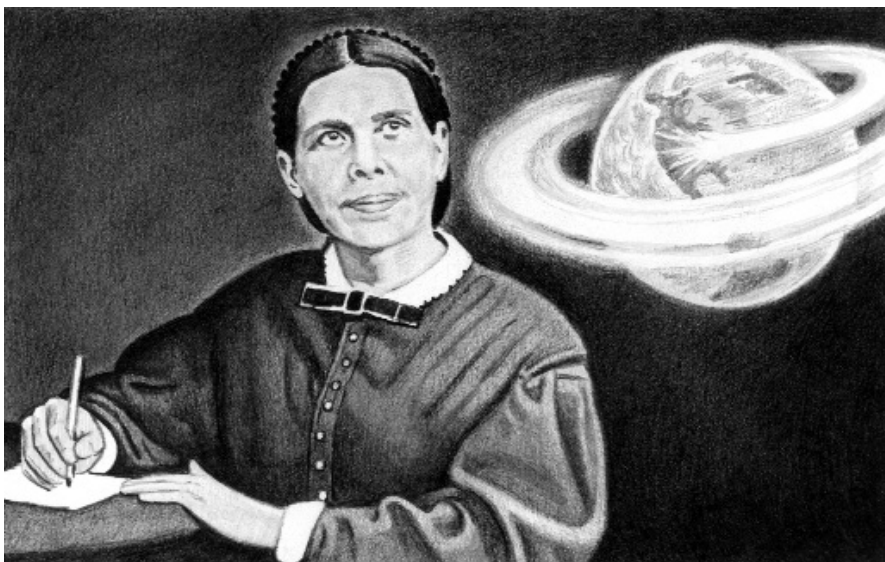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그 귀한 약속들을 암송하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빼앗기게 될 때에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원고모음 10권, 298(1909).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닻

이 마지막 때에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의 모든 거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끝절에 나타나 있다. -원고모음 13권, 68(1896).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그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을 경험한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진리의 완전한 사슬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라고 내게 제시되었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초기문집, 256(영문) (1858).



품성 형성과 절제(II)



김 동 춘

서문

1) 부절제는 뇌신경의 활력을 약화시킴 <원수의 전략!>

“어떤 종류의 부절제든지 감각 기관을 마비시키고 뇌신경의 활력을 약화시켜 영원에 속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 만일 우리의 신체 습관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우리의 정신적·도덕적 능력은 강해질 수 없다. 이는 신체와 도덕 사이에는 크나 큰 교감(交感)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회증언 3권, 50, 51.

“온몸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신경 계통의 전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력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로 마음의 감수성이 무감각하게 된다.” -교회증언 2권, 347.

2) 구속의 계획을 좌절시킴

“그[사단]는 … 온유한 사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스스로 취하도록 유혹하였다고 자랑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다윗과 솔로몬을 식욕과 정욕으로 유혹하여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시켰다. 그리고 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떠벌렸다.” -절제 생활, 14.

3) 식욕을 통하여 지배함

“식욕을 통해서 사단은 정신과 존재를 지배한다. 생존하였을 뻔한 수천의 사람들이 일찌감치 무덤으로 직행하며, 육체적·정신적·도덕적 파산자가 된다. 그들은 훌륭한 능력을 소유했지만, 식욕에 방종하느라 모든 것을 희생하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정욕의 목 위에 굴레가 씌워졌다.” -교회증언 3권, 562.

4) 품성 완성에 실패함

“만약 그들이 이 점에 승리했다라면 다른 모든 사단의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얻었을 많은 사람들이 식욕을 지배하는 데 실패하므로 파멸되고 말 것이다. 식욕의 노예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인 품성 완성에 실패할 것이다. 6천 년간이나 계속된 인간의 범죄는 그 결과로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다.” -절제 생활, 16.

5) 식욕의 방종은 그리스도인 품성 완성의 적(敵)임

“식욕에 방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 -교회증언 2권, 400.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식욕에 방종하고, 이생의 자랑이 지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

게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품성 완성을 위해 도우려 오실 수 없다.” -절제 생활, 19.

6) 참된 성화

“성화란 단지 이론이거나, 감정이거나 혹은 언어의 형식이 아니라, 일상 생애에 작용하는 살아 있고 능동적인 원칙이다. 성화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릇된 습관으로 부패시킨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도덕적 건강을 보존시키기에 합당하도록 먹고, 마시고, 입는 습관을 요구한다.” -절제 생활, 19.

7) 불멸을 위해 적합해짐

“만일, 사람들이 건강개혁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빛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는 진리로 성화될 수 있으며, 불멸성을 위하여 적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빛을 무시하고 천연계의 법칙을 어기며 산다면, 그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교회증언 3권, 162.

8) 성화와 습관과의 관계

“우리는 사도가 그 형제들에게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롬 12:1)로 드리라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 말씀을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성화이다. 그것은 단순히 이론이나 감정이나 형식적인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일의 생애에 파고들어 가는 생생하고도 활동적인 원칙이다. 그것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습관이 육체적·정신적·도덕적 건강을 확보하여 주님께 우리 몸을 드려져 그릇된 습관으로 병든 제물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롬 12:1)로 바칠 수 있게 되기를 요구한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64.

9)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생활 습관을 요구함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성화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식욕과 정욕이 건강과 생명을 소모시키는 방종에 빠져 있는 동안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건강 법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그 형벌을 받아

야 한다. 그들은 어떠한 점에서나 그들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웃들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할 수 없으며 또 전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수 없게 된다.” -성화된 생애, 29.

규칙적인 식사

위장은 모든 장기들의 기능(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료 공급처이다. 질이 좋은 연료(음식)는 연소(신진대사)가 잘 되어서 장기들에게 일하는데 좋은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만, 질이 나쁜 연료는 연소 부진으로 찌꺼기(노폐물)가 몸에 쌓여 많은 질병을 일으키고 동시에 나쁜 식습관(불규칙한 식사)으로 위장 안에서 발효(부패)되어 나쁜 피를 만들어 온 몸에 악영향을 끼치게 한다.

그러므로 좋은 음식(합당한 음식)과 좋은 식습관(규칙적인 식사)은 우리의 생명(생사)에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1) 위장에 휴식이 필요함

“위장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를 계속적으로 일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 혹사당하고 대단히 학대받은 기관에 약간의 평화와 안정과 휴식을 주라. 위장이 한 끼를 소화시킨 후 휴식할 기회를 갖기 전, 즉 그 다음 음식을 처리하도록 생리작용에 의하여 충분한 위액이 공급되기도 전에 일거리를 밀어 넣지 말 것이다. 매 끼 사이에 적어도 다섯 시간이 경과되게 하라. 그리고 항상 기억할 것은, 만일 그대가 시도해 보고자 한다면 두끼가 세끼보다 더욱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이다.” -서신 73a, 1986.



① 아침 식사는 왕같이 하라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사회의 습관이

요 통념이다. 그러나 이것은 위장을 대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아침식사 때에 위는 하루 중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식사 때보다 더욱 많은 음식을 처리할 만한 보다 더 양호한 상태에 있다. 아침을 조금 먹고 저녁을 많이 먹는 습관은 잘못이다. 그대의 아침 식사를 그 날 중 가장 영양 있는 식사가 되게 하라.” -서신 3, 1884.

② 늦은 저녁 식사

“앉아서 일하는 습관에 젖은 사람들에게 늦은 저녁 식사는 특별히 해롭다. 그들에게 탈이 나면 흔히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시작된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73.

“많은 사람들이 취침 시간 바로 직전에 먹는 해로운 버릇에 빠진다. ... 그러한 사람의 잠은 대개 불쾌한 꿈으로 침해를 받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상쾌하지 못하다. 노곤한 느낌이 들며 입맛을 잃는다. 신체 전반에 걸쳐서 기력의 부족을 느낀다. 월 시간이 없었으므로 소화 기관들은 오래 가지 않아서 낡아 못쓰게 된다. 이들은 비참한 소화 불량증 환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의아해 한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74.

○ 소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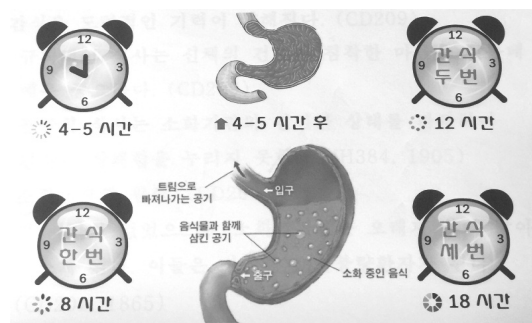
채식을 하는 경우에는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3~4시간 정도면 소화가 거의 되지만 육식을 하는 경우에는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6~7시간이 걸린다.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 효소가 없으므로 산성 물질인 육식을 중화시켜 밖으로 내보내야하기 때문에 중화시키려면 알칼리 물질인 ‘이온 칼슘’을 동원시켜야 한다.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화 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육식을 하면 위에서 오랜 시간 머물기 때문에 든든하고 속이 배가 고프지 않다고들 한다. 위장에 들어간 음식은 빨리 소화가 되어서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 져야만 소화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 간식

규칙적인 식사는 4~5시간이면 모두 비워진다. 그러나 간식을 할 경우에는 8시간이 되어야 음식물이 위장에서 비워지게 되는데 한번 간식을 할 경우에 위장에 들어있는 음식이 나가기도 전에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에서 소화되어 나가는 일을 멈추고 새로 들어온 음식(간식) 소화에 주력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다른 음식들이 발효(부패)되는데 그 발효(부패)된 음식이 소장을 거치게 되면 나쁜 피(오염된 피)로 흡수되어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습관적인 간식은 생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두번 간식을 하면 12시간 동안 위장에 머물고 세번 간식을 하게 되면 18시간이나 위장 안에서 머문다. 간식을 수시로 하는 경우에는 위장에서 술이 되어 알콜 성분이 피로 흡수되어 뇌(대뇌 전두엽)를 마비시켜 판단력과 도덕성이 없어진다. 그리고 간에 알콜이 들어가게 되면 알콜성 간경화라는 무서운 병을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알콜 중독은 정신이상을 초래하고 의지력이 없어져 결국엔 인생 폐인이 되고 만다. 습관적인 간식은 알콜 중독자의 증상들이 나타난다.



○ 규칙적인 식사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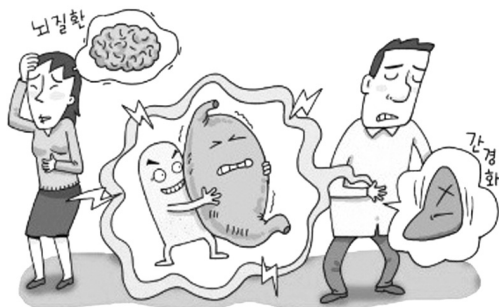
“정규 식사를 한 후 위장은 다섯 시간 동안 휴식이 필요 된다. 다음 식사까지 극소량의 음식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 식사가 불규칙하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만일 저녁 식사를 보통보다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일찍 먹게 되면 위가 새로이 지워지는 무거운 짐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위가 먼저 먹은 음식을 아직 처리하지 못한고로 새로운 일을 위한 활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신체 조

직은 과도한 일을 하도록 강요당한다. ... 만일 그 시간이 지연되면 조직의 활력이 감소된다. 그리고 마침내 식욕이 완전히 감퇴되어 버린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79.

“불규칙한 간격으로 또한 식사 사이에 먹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버릇을 고칠만한 충분한 의지력을 갖지 못한 때문이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79.

“이 장소에서 제시된 모든 기별에도 불구하고 그대들 중 많은 이들이 간식을 한다는 점에 대해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정규적인 식사 이외에 한 조각의 음식도 입에 집어넣지 말 것이다! 먹을 것을 먹되 식사 때에 먹고 다음 때까지 기다리라.” -교회증언 2권, 373.

“많은 사람들이 빛과 지식에서 돌아선다. 그리하여 입맛의 원리를 희생한다. 그들은 육체가 음식을 요구하지 않는 때에 또한 불규칙한 시간 간격으로 먹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습성을 저항해 낼 도덕적인 기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학대받은 위장은 반발을 일으켜 고통이 따른다. 규칙적인 식사는 신체의 건강과 침착한 마음을 갖는데 아주 중요하다. 식사 사이에 절대로 한조각의 음식도 입술을 통과하지 않게 하라.”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81.



* 간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거룩한 불과 다른 불

“먹는 것에 부절제함으로써 그대들(목회자)은 그대 스스로 거룩한 불과 속된 불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부절제를 통하여 그대들은 또한 주께서 그대들에게 주

신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대들에 대한 그분의 말씀은 이러하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띤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사 50:10, 11).’ -교회증언 7권, 258.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할지에 대한 중요성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저희의 미각을 마음대로 방종하도록 허용되며, 어느 시간이나 먹도록 허락되고 파이나, 과자, 빵과 버터, 과실이 그들의 눈을 유혹하면 언제나 집도록 허락된다. 그리고 거의 언제나 사탕 과자를 먹는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로 대식가(大食家)와 소화 불량자들을 만든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제분기와 같은 소화기관들은 약해지고, 위장의 과도한 일을 돕기 위하여 활력은 뇌로부터 호출된다. 그러므로 정신력이 약해진다. 비정상적인 자극과 활력의 소모는 그들로 하여금 신경질적이며 제지에 대하여 참지 못하게 되고 고집스럽고 초조하게 만든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81.

“많은 부모들은 극기하는 습관을 저희 자녀들에게 끈기 있게 교육시키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업을 회피하고, 자녀들이 좋아하면 언제나 먹고 마시는 데 방종하게 한다.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한, 식욕과 이기적인 방종은 그들의 성장과 더불어 늘어나고, 힘이 생김에 따라 굳어진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81.

“합당치 않게 먹는 아이들은 흔히 허약하며, 창백하고, 발육이 부진하며, 신경질적이고, 성급하며, 초조하다. 고상한 것은 모두 식욕에 희생되며 동물적인 정욕이 강하여진다. 다섯 살에서 열 살 및 열다섯 살까지의 많은 아이들의 생애가 부패로 특징지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각

종 악습(惡習)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다. 부모들은 적잖게 이 문제에 있어서 허물이 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231.

“만일, 우리가 이생에서 형성하는 습관이 우리의 영원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 달려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엄격히 절제하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3권, 489.

“주정음료를 몹시 싫어하도록 그대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식욕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 안에 조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235.

“식욕의 고삐를 늦추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이르는 불가능하다. 그대가 자녀들의 음식 선택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자녀들의 도덕적인 감수성은 도저히 쉽게 각성되지 않을 것이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236.

○ 부모들에게

“부모들은 생명의 법칙과 건강 법칙을 이해하는 것을 그들의 첫째 할 일로 삼을 것이다. 그리하여 음식 준비에나 혹은 어떤 다른 습관을 통해서라도 부모들로 말미암아 저희 자녀들 안에 그릇된 성벽을 계발시킬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소화 기관들이 약화되지 않고 신경력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 앞에 차려놓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교훈이 효력을 잃지 않도록 가장 단순하고 건강적인 음식으로 그들의 식탁을 준비하기 위하여 어머니들은 얼마나 주의 깊게 연구하여야 할는지! 저희 자녀들의 육체와 도덕적 체질을 보호하므로 신경조직이 잘 균형 지게 하고, 그 영혼이 위태롭지 않게 되도록 얼마나 신성한 책임이 부모들에게 위탁되었는가!”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237, 238.

“통탄스러운 사태가 존재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부모들이 저희 자녀들을 신체 법칙에 일치하도록 길러야 한다는 의무감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어머니들은 저희 자

녀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방종하는 것이 저희 건강을 손상시키며 그로 말미암아 질병과 불행을 스스로 초래한다는 것을 부모들은 알면서 그들을 식욕에 방종하게 한다. 이 잔인한 친절이 오늘날 지대한 정도로 나타난다. 건강과 행복을 희생하면서 어린 아이들의 욕구를 만족시킨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불평에 대하여 그것을 억제하느니보다는 그들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어머니에게 당분간 더욱 쉽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어머니들은 싹이 터서 열매를 맺힐 씨를 뿌리고 있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식욕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제한하도록 교육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이기적이며, 가혹하고,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자신들이 심은 씨의 쓰라린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들은 하늘과 저희 자녀들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실 것이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238.

“마지막 셈하는 데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만날 때에 어떠한 장면이 나타날까! 그들의 생애가 도덕적으로 파선되고, 식욕과 저열한 악습의 노예들이었던 수많은 자녀들이 자기들을 그러한 인물로 만들어 놓았던 그 부모들을 대면하여 만날 것이다. 이 두려운 책임을 져야 할 자가 부모밖에 누가 있는가? 주님께서 이 청년들을 부패하게 만드셨는가? 오! 아니다. 그러면 이 두려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 누구인가? 부모들의 죄가 타락한 식욕과 정욕으로 그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본에 따라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등한히 한 그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완성되지 않았던가?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확실한 것과 꼭 같이, 이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238.

요약

1. 시간을 엄격하게 할 것.
2. 위장은 5~6시간의 간격이 필요함.
3. 새로운 일을 위한 활력이 없음.
4. 단축, 지연은 조직의 활력이 감소됨.
5. 마침내 식욕이 완전히 감소된다.
6. 좋은 피를 변화시킬 수 없다.

7. 규칙적인 식사는 생명에 중요하다.
8. 간식은 의지력을 약하게 한다.
9. 간식은 도덕적인 기력을 약하게 한다.
10. 규칙적인 식사는 신체의 건강과 침착한 마음을 갖는데 매우 중요하다.
11. 불규칙적인 식사는 소화기관의 건전한 상태를 파괴하며 건강과 상쾌함을 누리지 못함.
12. 소화불량의 원인.
13. 쉴 시간이 없었으므로 소화기관들은 오래 지 않아 낡아 못쓰게 된다. 이들은 비참한 소화 불량환자가 된다.

결론

1)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

“에덴을 회복하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흔들리지 않는 자제를 통하여만 존재한다. 만일 인류에게 가해진 방종한 식욕의 권세가 그렇게도 강하여 그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께서 인류를 위하여 거의 여섯 주일의 금식을 견디셔야 하셨다면 그리스도인 앞에 놓여 있는 과업은 얼마나 엄청나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투쟁이 클지라도 그는 이길 수 있다. 사단이 고안할 수 있었던 가장 극심한 시험을 저항하신 그 거룩하신 능력의 도움으로 그도 역시 악과 접

전하여 완전히 성공할 수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 -절제 생활, 20, 21.

2)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께서 먹고 마시는 모든 부절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정하고 욕욕적인 모든 정욕과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그분께로 가까이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품성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육과 영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지 않겠는가?” -교회증언 7권, 258.

3) 성령의 열매(성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 23)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초를 놓아줄 뿐 아니라 또한 그 열매를 충실히 보존하도록 하는 매체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절제 사업은 셋째 천사 기별과 병행해야 하는 「현대진리」인 것이다. 



4월 1일(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2019년 기도력

마라나타



엘렌 G. 화잇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누구나가 다 그 말 그대로 목사나 선교사가 되도록 요구하시는 바 된 것은 아니나 모든 사람이 다 동료 인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일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 명령은 위대하거나, 평범하거나,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또는 노유를 물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교육, 264).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사람에게 전할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세상의 행복과 구원에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리뷰 앤 헤럴드, 1904. 3. 10).

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주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서는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비할 바 없는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셨다. 주리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라. 그리하면 그분의 사랑의 빛은 사람들을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불법으로부터 순종과 참된 성결로 인도할 것이다. 오직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만이 죄의 가증한 특성에 대하여 양심을 깨우쳐 준다(리뷰 앤 헤럴드, 1892.11.22).

우리 교인들은 그들의 시선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구주, 그들의 영생의 소망이 집중되어 있는 분에게로 계속 고정시키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기별과 이론의 요지와 교리이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격려요, 모든 신자들을 위한 소망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자 하는 흥미를 일으켜 주려면, 우리 스스로는 뒤로 물러서고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어린양께로 계속 고정시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릴 것이다. 그는 이기심을 버릴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토록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것이다(SDA 성경주석[화잇주석] 6권, 11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입고 있었다면 속히 복음의 씨가 온 세상에 뿌려질 것이었다. 마지막 추수는 속히 무르익어 그리스도께서는 귀중한 곡식을 거두시려고 오실 것이었다(교회증언 8권, 22, 23).

십자가의 기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 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한 기별을 나에게 주셨다. 그대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므로 그대의 모든 소유와 인격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대의 동료 인간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셨다. 그분은 이 사업에서 그대의 협력을 구하고 계신다. 그대는 그분을 돕는 도움의 손이 되어야 한다. 그대는 열렬하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변화시키는 능력은 자신을 하나님의 봉사 사업에 바치는 사람으로 끌짓는다. ... 그는 더 이상 자기 주변에서 멸망해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무관심 할 수 없게 된다. ... 그는 자신의 모든 부분이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과 미래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로 사신 바 되었음을 깨닫는다.

그대는 갈바리 위에서 치르신 희생을 너무나 감사하므로 모든 관심을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기울이고 있는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열렬한 소망은 구주의 생애의 특징이었는데 그와 똑같은 소망이 그분의 참된 추종자들의 생애의 특징이 된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자신을 위해 살려는 소망이 없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와 인격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기를 기뻐한다. 그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소망에 의해 움직인다. ...

나는 창조와 구속으로 나를 소유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함으로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 진정으로 개심한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직도 사단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한다. ... 우리에게는 영원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불과 얼마남지 않았다. ...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필요하다.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한다. 영혼들을 찾고, 그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 ... 우리에게는 세상에 장차 다가올 운명을 경고할 무거운 책임이 지워져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교회가 일어나서 스스로를 능력으로 옷입히라고 초청하신다. 불멸의 면류관과 하늘 나라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무지 가운데서 멸망하여 가는 세상은 계몽되어야 한다(교회증언 7권, 9~12, 16).

사랑이 동기가 됨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요일 4:21)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언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에게 대하여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가지지 못하는 한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 ... 자신이 그리스도께 융화되는 때에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 속에서 계속하여 일어나는 때-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에-성취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사랑의 금사슬로 말미암아 우리 동료 인간들과 연결된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공훈과 동정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궁핍한 자들과 불행한 자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동정하여 달라는 간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신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궁핍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을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

타락한 자들을 향상시키고 괴로움 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것은 하늘의 큰 기쁨이다. ...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고 충만함으로 어디든지 뚫고 들어간다. 이러한 사랑은 사단의 세력의 범위에 서 사단의 기만으로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낸다. 이 사랑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바, 그 보좌는 허락의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이다. ...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동역자로 높여질 모든 사람을 향상시키기를 원하시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분은 우리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곤란과 재난을 겪도록 허락하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의 특질-동정, 공훈, 사랑-이 계발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그 율례를 지키면 내가 또 너로 여기 쫓는 자들(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천사들까지)중에 왕래케 하리라”(슥 3:7)고 하셨다. 우리는 하늘에서 하늘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저희들과 협력하여 일하며 준비하고 있다(실물교훈 384~389).

증거를 시작해야 할 곳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시 144:12)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업은 가정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가정보다 더 중요한 선교지는 없다(교회증언 6권, 429).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그 자녀가 감사하고 존경하도록 자신들의 생애가 거룩한 분을 진정으로 반사하는 부모들, 자신의 사랑과 공의와 오래 참음으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오래 참음을 설명해 주는 부모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부모들은 행복한 부모들이다. 자녀에게 그런 선물을 주는 부모들은 어떤 시대의 재물보다 귀중한 보배, 즉 영원히 지속할 보배를 그에게 준 것이다(치료봉사, 375, 376).

하나님께서서는 어린 나이의 모든 아이들이 당신의 자녀가 되고 당신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 어린이들은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믿음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가장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감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마음을 바쳐서 예수님을 확신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구주를 위해 살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작은 선교사로 삼으실 수 있으시다. 죄가 즐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하고 미워해야 할 것으로 보이도록 그들의 온갖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줄 수 있다(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69).

부모들은 교훈과 모본으로 자녀들에게 개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 자녀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주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 저들의 어린 시절의 자아 극기와 다른이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한 희생은 되풀이하여 가르쳐져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과 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

하나님께서서는 지상의 가족들이 하늘에서 한 표상이 되도록 계획하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게 되도록 세워지고 지도되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그리스도인 품성의 형성과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관들이다(교회증언 6권, 429, 430).

필요한 것이 많은 세상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므로”(사 59:9)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온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동경하며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망하는 영혼들로부터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거두어 들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늘나라의 문턱에서 있다(사도행적, 109).

도처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죄악의 속박에서 구원해 줄 능력, 건강과 생명과 평화를 줄 능력을 갈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일단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생활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

세상은 1900년 전에 필요로 했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오늘날에도 요망하고 있다. 위대한 개혁 사업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육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 사업이 성취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방법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에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우리는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사람들과 친밀해질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확신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함께 하면 이 사업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치료봉사, 143, 144).

인간이 무엇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멸망해 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를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늘의 천사들은 인간 도구들과 협력하고자 기다리고 있다. 자아를 버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자리를 마련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생애를 사는 사람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치료봉사, 159).

집집방문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행 20:20)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읽는 일과 서적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 더 많은 집집 방문 활동을 해야 한다. ... 우리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릴 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후 9:6)는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그대의 동료 인간들의 물질적인 궁핍을 구체해 주면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은 장벽을 깨뜨리고 그대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이다. ... 여자들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그들은 가족들 가운데서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일, 집안 살림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들은 남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할 수 있다. 그들의 사업은 필수적이다. 신중하고 겸손한 여자들은 각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일을 썩 잘 할 수 있다.

그대는 가정 안에서나 이웃의 난로가에서나, 병자의 침상 곁에서 조용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뿌려진 귀중한 씨앗은 썩이 터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

가망이 없어 보이는 많은 곳에서도 선교 사업은 행해져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선교 정신에 사로잡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일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일하기로 계획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접근하도록 우리가 고무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은 증가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교회증언 9권, 127~130).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자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 빛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인들과 협력하고자 기다리고 있다(교회증언 9권, 129).

우리의 자매들, 어린이들, 중년과 고령자들은 이 시대를 위한 마지막 사업에서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에 이 일을 함으로 가치가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자신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은혜 가운데서 자라날 것이다(전도법, 468).

일대 일의 증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왜 그들의 이웃과 친구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 위대한 구원을 더 이상 등한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심으로 멸망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즐겨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영혼의 큰 수고를 나타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시고, 즐겨 구원하시기를 갈망하신다! 위기에 처한 영혼들로 하여금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운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라. 그대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부드럽고 동정적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죄인에게 이야기하라. 눈에 거슬리지 않는 깊은 열심이 있게 하라. 큰 외침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하여 영혼을 설득하기에 힘쓰는 자들로부터 외쳐져야 한다.

먼저 그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대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되면 부드럽고 온유하게 될 것이며, 그대는 구속하시는 사랑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을 십자가로 데리고 오라. 그들의 마음을 그대의 마음과 연합시키고, 그대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죄짐을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라. 그들로 하여금 부족하고 죄 많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대신 구주를 바라보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승리를 얻게 된다. 그들은 스스로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바라본다. 그들은 길이요 생명인 분을 본다. 의의 태양이신 분께서 밝은 빛을 그 마음에 비추신다. 구속하시는 사랑의 강한 조류가 메마른 심령 속으로 흘러들어가면, 그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찢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들을 모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다. 형식적이고 관에 박힌 성경 구절들을 단순히 논쟁적인 주제들로 제시하는 것은 거의 유익이 없다. 사역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구원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영혼들은 생명의 샘물을 목말라 하고 있다. 만약 그대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낸다면, 그대는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을 예수께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떡과 구원의 생수를 주실 것이다(교회증언 6권, 66, 67).

4월 8일(월)

경고를 발하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욥 2:1)**

우리의 영원한 행복에 관계되는 사물들이 지금 우리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우리는 하늘의 사물들을 이차적인 위치에 둘 수 없다. ...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이르렀다. 그들은 엄숙한 경고의 음성으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참 의미를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다. 나는 종말이 가까왔음을 분명히 말해 주는 시대의 징조들의 성취를 그들이 무시하지 말 것을 호소한다. 오늘 구원을 얻지 못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내 영혼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쓰라린 탄식을 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다. 예언은 신속히 성취되어 가고 있다. 은혜의 시기는 재빨리 지나가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 순간도 없다. 우리가 파수를 보다가 자는 채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아무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사업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다시 오신다는 기별이 열렬한 경고의 말로 발해지도록 하라. 어디에서든지 남녀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다가올 진노를 면하도록 권고하자. 그들을 깨워 즉시 준비하도록 하자. 이는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조금 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사들과 평신도들로 하여금 추수장으로 나아가도록 하자.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므로 우리는 평강 가운데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결심하자.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하며 구주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도록 해야 한다. ...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뵈옵고 그분의 구속받은 자들로서 환영을 받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런 일이 될 것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 왔으나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영광의 왕을 뵈올 수만 있을지라도 영원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구속받은 사람들을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시고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리뷰 앤드 해랄드, 1903.6.14).

4월 9일(화)

현대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롬 13:12)

우리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 사람의 마음 속에 진리를 심어 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방법을 다 이용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목표만을 가져야 한다. ... 진리에 관한 지식을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일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201).

하나님께서서는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당신의 것이 된 사람들이 당신의 음성을 듣고, 친절하고 겸손한 자녀로서 순종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또한 그들의 소원이 그분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에게 비치는 그분의 얼굴의 광채를 간직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자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반열에 참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별이 마쳐질 때와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지 않으셨다. ... 멸망 직전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봉사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

지금, 바로 지금이 우리가 깨어 있고, 활동하고, 기다릴 때이다. ...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르렀다. ... 주님의 성령께서는 영감받은 말씀의 진리를 취하여 그것을 영혼에게 인치시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을 간직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경건에 나타난 바와 같은 진리의 능력에 대해 더욱 깊고 더욱 강력하고 더욱 강권하는 증거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리를 마음에 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세상은 매우 엄숙한 시기에 처해 있는데, 그것은 영혼들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킴으로 영혼들이 죄의 그물에 사로잡히도록 계속 음모를 꾸미고 있다. 세상을 덮고 있는 암흑은 깊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리뷰 앤드 해랄드, 1894.10.9).

결정의 시기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오늘날 세상은 미쳐 있다. 광기가 남녀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재촉하고 있다. 각종 방종이 편만하고 사람들은 죄악에 깊이 빠져 있으므로 경고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말씀하신다. 지금은 모든 것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깨어서 때의 엄숙함과 인간의 은혜의 시기가 끝날 날이 가까왔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5년이나 10년이나 20년 후에 이 세상 역사가 끝나리라는 기별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지체한 데 대해 변명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또한 그분께서는 아무도 불성실한 종처럼 “주인이 어디 오리라”고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큰 날을 위해 준비하도록 주어진 기회들과 특권들을 무모하게 무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매일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당신의 사업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속히 오실 인자에 관하여 이야기하라. 시간을 미루지 말라. ... 여기에 각 사람이 져야 할 큰 짐이 있다. 나의 죄들은 용서를 받았는가? 죄짐을 지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셨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정결케 된 깨끗한 마음을 소유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지 않는 영혼에게 재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길에서 있게 될 모든 자들에게, 또한 지금 어떤 영혼을 부주의하게 만드는 자들에게 재난이 있을 것이다.

온 마음을 다 바쳐야 할 위대한 사업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처지를 생각하는 일이다. 우리의 발은 영원한 반석을 딛고 있는가? 우리는 유일한 피난처에 숨어 있는가? 맹렬하고 격노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 같이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인가? ...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만 우리의 유일한 안전이 있다. 아무 것도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리뷰 앤드 해랄드, 1900.11.27).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생애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눅 9:23)

가장 편만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전염성이 강한 영적 질병을 일으키는 죄악은 이기심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 우리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이기심이라는 죄악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일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우리가 교제하거나 거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야 하는데, 바로 일상 생애의 업무 중에서 자아가 부인되고 극복되어야 한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할 수 있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은 생애의 작은 사건들 가운데서 매일 자기에 대해 죽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자기를 잊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신에 그들의 쾌락을 더 추구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감화와 금전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감화 아래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애정을 고상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능력을 활용할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할 의무를 분명하게 주신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하면서 즐거운 만족, 즉 충분한 보상이 되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고상하고 훌륭한 욕망에 의해 행동할 때 그들은 생애의 수많은 의무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중에 얻는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보상 그 이상의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성실하고 헌신적인 의무의 이행은 천사들이 주목하고 생애의 기록에서 빛나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생각하거나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순결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 주위에 있는 하늘 거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서 하늘의 교제를 누리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원칙들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교회증언 2권, 132, 133).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업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생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교회증언 6권, 439).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 7:13, 14)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갈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리로 가는 때 발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진리의 강령 위에 서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열렬히 투쟁할 것을 요구하신다. …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과 악한 영들이 진리에 대항하는 싸움에 총동원 될 때, 사단의 기만적인 능력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자 할 때가 가까와지면, 우리가 사단의 책략에 대해 무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분별력이 예민해져야 한다. …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들이 우리와 협력하도록 하심으로 우리의 사업이 영광스러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분산된 노력으로서는 거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모든 교인들의 연합된 감화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교회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낼 사람들이 필요하다. 교인들은 더욱 높은 표준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하늘의 사자들은 자기를 보이지 않게 감추고 그의 생애로써 다음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자 기다리고 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교회가 그런 남녀들로 구성된 후에야 세상에 뚜렷하고 독특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의의 태양이신 분에 관한 우리의 견해는 이기심으로 흐려지고 있다. 방종을 통하여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듭 십자가에 못박고 있다. …

모든 사람이 시험과 시련을 받아, 하늘나라를 지배하는 율법에 충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거짓말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살인자로 나타내도록 허락하신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승리는 더욱 두드러지고 더욱 영광스러우며, 더욱 흐뭇하고 완전하게 된다(리뷰 앤드 해랄드, 1900.12.4).

그리스도와 의 협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요 15:5)

마지막이 가까왔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남은 사업을 완수하도록 요구하신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된 그대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이끌어 들이도록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산 대리자들, 곧 세상에 빛을 전할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대의 주위에는 영혼 구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대를 지지하고, 강하게 하고, 격려하도록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하늘 천사들이 있다. …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과 구별되라. 의의 태양의 밝은 빛을 반사하므로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 없이 되어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큰 길과 작은 길에 밝은 빛을 전하는 백성, 곧 세상에 거해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백성이 되라. 영원히 너무 늦기 전에 교회를 깨우도록 하라. 모든 교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에게 붙여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하라. 건전한 믿음과 열렬한 간구가 나태와 불신을 대신하도록 하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진리는 그 영혼에게 기쁨을 줄 것이며 신앙의 봉사는 지루하고 흥미없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 그대가 공언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을 실천할 때, 그대는 매일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죄인들은 돌이킬 것이다. … 모든 사람이 깨어 일어나 그들의 믿음은 산 믿음이라는 것과, 세상에는 중대한 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머지 않아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나타낸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서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음을 깨닫도록 하라.

인간 대리자들의 성실과 불성실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지체되거나 촉진된다. 그 사업은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일에 실패하므로 방해를 받는다. 사람들은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 기도를 실생활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그들의 간구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 그러나 비록 그대가 연약하고 허물과 죄가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대에게 그분과의 협력을 제공하신다. 그분은 그대에게 거룩한 지도 하심 아래 나아올 것을 초청하신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교회증언 6권, 436~438).

구주의 대리자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벧전 2:12)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자들이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대하신다. ... 그들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전하는 성화되고,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원칙과 관심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에서 고립되어서는 안된다.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조장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19)라고 말씀하셨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도 사람들 가운데 거하여 거룩한 사랑의 향기가 마치 소금의 역할을 하여 세상이 부패하여 가지 않도록 보존해야 할 것이다. ...

더욱 높고 순결하고 고상한 생애의 능력이 우리에게 크게 요망되고 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서의 신앙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상이 계속 끼쳐지고 있다.

또한 하나님과 천사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실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교가 세속주의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들이 높고도 거룩한 수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아들이는 진리가 하늘 임금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을 보시고자 갈망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통로로 삼아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부어 주시고자 갈망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갈망하며 기대하신다. 구주의 품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재현될 그 때에, 당신의 소유를 찾으시고자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주님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속히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큰 수확은 속히 익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시려고 강림하실 것이다(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322~324).

세상이 인정할 품성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빌 2:15)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의 원칙들을 나타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애와 품성으로 이 원칙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이 세상의 풍속과 습관과 관례에서 분리되기를 원하신다. ...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난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와 공의와 사랑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품성을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생애에 나타날 때에, 세상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탁월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제칠일 재림교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 경건의 모본들이 되어야 하며, 마음과 대화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일찌기 인간에게 위탁되었던 진리보다도 더 엄숙한 진리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능률이 주어졌다. 그들은 머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이 저희 세계의 원동력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는 것들이 하나님께 크게 욕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단의 유혹하는 세력이 날로 증가하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기로 가득차 있으며 우리들은 매 단계마다 확실한 보증과 의를 얻기 위하여 꾸준히 위대하신 교사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 놀라운 광경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으며 도처에서 악이 성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저희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힘쓰는 백성, 즉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백성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대의 산 증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

그들의 생각은 순결하고 그들의 말은 고상해야 한다. 그들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전하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경건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생애로 진실을 실증함으로써, 그들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일을 이루기에 충분하다(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321, 322).

세상이 필요한 증언

“우리의 추천장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씌어져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또 읽혀지는 추천장입니다”(고후 3:2, 새번역)

변화된 품성으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구속하시는 은혜의 능력이 그릇된 품성에 역사하여 균형지게 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발달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백성들이 나타낼 것을 기대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가지 예비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근원이 되는 이기심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고 명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갈망하시며, 헌신으로 길을 깨끗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되면,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의 그리스도와 같이 아니한 점들이 다른 사람들의 길에 장애물로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치워버릴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약 5:16)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면 다윗이 죄를 회개한 후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림으로 얻게 된 보증을 우리도 얻을 수가 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시 51:12, 13).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지배하면, 그 영혼은 믿음과 용기의 분위기, 곧 그것을 들이마시는 모든 사람의 영적 생애를 활기치게 하는 분위기로 에워싸이게 될 것이다. …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한 모든 사람, 성령의 비침을 받아 진리로 돌이킨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귀중한 축복들로 인하여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목사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혼들을 움직이는데 사용하실 것이다. 그들은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드러내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스스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기회를 주신다.

소망과 믿음은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능과 능숙한 솜씨로 일하는 자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와 일할 수 있는 거룩한 대리자들을 소유하실 것이다(교회증언 6권, 43, 44).

하나님께서 부족을 채워주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후 6:1)

우리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구원할 영혼들이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많은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위탁된 능력과 힘을 최선껏 활용해야 한다. …

천사들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위탁받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영혼의 유익만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고 만일 설교가 시원치 않으면 불만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거의 책임을 지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느끼겠는가? 산 믿음으로 진정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모든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영적 생명을 계속 받을 것이므로 침묵할 수 없다.

생애는 언제나 행동가운데 나타나는 법이다. 만일 심장이 살아있다면, 그 심장은 인체의 각 부분에 살아있는 피를 보낼 것이다. 자신의 마음이 영적 생명으로 차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내도록 강권함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은혜의 흐름이 되어 그들에게서 흘러 나갈 것이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이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속적인 결과를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뛰어나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가장 유능한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다음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29). 만일 하나님께서 지성의 재능들을 위탁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재능들을 이용하기를 거절하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시험해 보신 후에 그들이 좋을 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고, 재능이 그다지 풍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자신을 그다지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취하실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교회증언 6권, 440, 443, 444).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봉사를 받으실 것이며, 또한 부족함을 채워 주실 것이다. 천사들은 그대의 하늘 주인에 대하여 그대가 어떤 종류의 보고를 세상에 전하고 있는지 듣기 위해 귀 기울이고 있다(정로의 계단, 119).

능력있게 전파함

“그때 침례 요한이 나타나 유대 빈 들에서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으니”(마 3:1, 2, 새번역)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애하는 동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들을 연구하였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지자들의 두루마리 책들을 연구하였다. 생각과 마음과 영이 영광스러운 계시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는 밤낮으로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명상하였다.

그는 영광 중의 왕을 바라보았으며 자아는 잊어버렸다. 그는 거룩한 위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깨달았다. 그는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증거해야 할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늘의 사자로서 앞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요한은 어떤 복잡한 논쟁이나 치밀한 이론으로 자신의 기별을 선포하고자 하지 않았다. 놀랍도록 엄숙하면서, 동시에 소망이 가득한 그의 음성이 광야에서 들렸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3:2). 그 소리는 새롭고도 이상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온 나라에 소동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왔다. …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직전인 이 시대에도 요한의 사업과 같은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오실 것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증거해야 할 한 기별을 가지고 있다. 그 기별은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암 4:12)는 것이다. 우리의 전하는 기별은 요한의 기별처럼 솔직해야 한다. 요한은 왕들의 죄악을 견책하였다. 그는 자신의 생애가 위태롭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우리의 사업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행해져야 한다.

우리가 요한이 전했던 것과 같은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영적 경험을 해야 한다. 그와 똑같은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아를 잊어버려야 한다(교회증언 8권, 331~333).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요한은 본래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결점과 약점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변화되었다.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이 시작된 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선생을 따르고 있다는 불평을 하였다. 그 때에 그는 자신과 메시아의 관계를 얼마나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 자기가 길을 예비한 그분을 얼마나 기쁘게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27~30).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희생할 정도까지 향상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고자 애쓰지 않았으며, 그들의 생각을 더욱 더 고상하게 향상시켜서 마침내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향하게 하였다. 그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였다. 이제 그는 기꺼이 무명인사로 전락하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생명의 빛되시는 분께 주목하도록 해주었다.

하나님을 위한 사자로서의 사명감에 충실한 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침례 요한처럼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그들은 예수님을 높일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높임을 받을 것이다. …

자신을 비운 그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였다. … 그는 구세주의 영광을 증거하였다. …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가 기꺼이 스스로를 비울 때에만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자 동의할 때에 하나님의 품성을 식별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넘치게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골 2:9, 10) 진다(교회증언 8권, 333, 334).

개혁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눅 1:17)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 주님 앞에 앞서 갔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진리들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길을 예비하도록 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였다. …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길을 예비할 사람들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한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충실한 엘리야로 표현된다. 개혁의 큰 주제가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은 고조될 것이다. 범사에 절제하는 일이 그 기별과 병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숭배와 폭식과 의복과 그밖의 사치에서 돌이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극기와 겸손과 절제는 이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절제하지 못하고 건강을 파괴하는 습관과 대조를 이루어 사람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건강개혁이 손과 인체와의 관계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셨다. 이 중요한 문제를 무시하는 일은 육체적 및 도덕적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식욕과 정욕에 빠져서 그들이 기꺼이 버리지 않는 죄악적인 방종을 깨닫게 될까 두려워 빛에 대해 눈을 감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의 백성을 세상의 방종된 습관들과 식욕과 정욕의 방종에서 이끌어 내어 범사에 극기하고 절제하는 위치에 서도록 지도해 오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백성은 독특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그들은 그분의 목적을 이룰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 거하실 것이다. … 사도는 그대의 육체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한다(교회증언 3권, 61~63).

건강 생활을 장려함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활기를 빼앗아 가는 습관에 계속 빠져가고 있는 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없다. 사도는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건강에 관한 권면, 23).

우리는 의와 품성의 순결, 특히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일과 반대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가 어느 곳을 바라보든지 부정과 타락과 기형적인 일과 죄악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불멸의 선물을 받기 직전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 주변에 편만한 타락 가운데서도 흠없이 서야 한다. 이 일이 완성되려면 열렬하고도 분별력있게 즉각 착수되어야 한다. 성령께서는 모든 행동에 감화를 끼치기 위하여 완전히 지배해야 한다.

건강 개혁은 주님의 재림을 이해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위대한 사업의 일부뿐이다. … 남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지 않고서는 타락한 식욕이나 색욕에 방종함으로 자연 법칙을 범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건강 개혁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세우신 법칙을 범하는 죄악을 깨닫게 하셨다. … 자연 법칙을 분명히 알려 주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권고하는 일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병행해야 할 사업이다. … 그분(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온 세상에 알려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어, 그 기별을 연구하도록 계획하셨다. 왜냐하면 남녀들이 죄악적이고, 건강을 파괴시키고 두뇌를 약화시키는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신성한 진리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건강 개혁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은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 영생을 준비하는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도움을 받게 된다(건강에 관한 권면, 20~22).

헌신의 미덕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믿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였으며, 이 은혜는 그의 영혼의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었다. 믿음으로 그는 하늘의 선물을 받았으며,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 이와 같은 믿음을 간직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을 얻기 위해 힘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에게 주실 줄로 믿으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루어져야 할 큰 사업이 있다. 회복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모든 능력의 근원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충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력한 사고력, 확고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생기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마음을 사소한 것들로 채울 여유가 없다. 그들은 매일 영적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신 분께 배우라. 그분에게서 배우게 되면 겸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대는 매일 하나님의 사물들 안에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과 그분과 연합하는 영광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법을 계속해서 더욱 잘 배우게 될 것이며, 더욱 구세주처럼 자라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확대시켜 나가고 그리스도인 우정의 유대관계에서 서로 연합한다면, 하나님께 선택되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매일의 생애가 귀중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의 생애에서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위탁된 재능을 사용할 기회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리뷰 앤 헤럴드, 1907.5.30).

우리는 남을 위해 봉사하기를 즐거움으로 자신을 잊어야만 한다. ... 우리는 우리가 하는 친절한 어떤 행동들을 기억 못할지도 모르나 ... 영생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행한 모든 행동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말하였던 모든 말로 인하여 이르러 올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이러한 모든 행동은 영원을 통하여 우리 기쁨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하늘에서, 230).

하나님의 기구가 되는 청년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멩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애 3:27)

하나님께서는 정력과 힘이 왕성한 젊은이들을 부르셔서 극기와 희생과 고통을 당신과 함께 나누도록 하신다. 만일 그들이 그 부르심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기구로 삼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희생의 값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신구속자를 섬기는 조건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고서 그 사업을 착수하게 하실 것이다. ...

우리는 먼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도록 준비된다. 이전에는 우리의 열렬한 사역자들 사이에 크게 마음을 살피는 일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 근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겸손하고 열렬한 기도를 드리면서 연합하였다. ...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그리스도의 강령은 더욱 가까웠다. 지나가 버리는 하루 하루는 우리가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할 날을 하루씩 더 단축시킨다. 오늘 하나님께 더욱 열렬히 간구하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순결하고, 믿음이 있으면 좋으련만 ... (교회증언 5권, 87, 88).

우리에게는 구주를 위해 해야 할 한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죄의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것이다. 젊은 친구들이여, 그대들은 신성한 책임을 맡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대들은 그대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말을 해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위해 성경 연구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대는 자신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위엄으로써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진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다고 증거하라. 만일 이 진리가 영혼에 새겨져 있다면, 그리스도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표징과 행실, 그리고 조용하고도 고상한 침착성과 평온 속에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진정한 겸손을 갖추고, 복음에 나타난 진리로 마음이 성화된 사람들은 감동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감명을 줄 것이다(교회증언 5권, 401).

내게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순수한 신앙의 정신으로 물든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이 없다. 원칙으로 말미암아 제어되고, 순결과 의의 옷을 입은 젊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여, 전진하라. 그대의 구세주께서는 그대의 재능에 가장 적합하고 그대가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의무의 길에서 그대는 그대의 날에 있어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것이다(교회증언 5권, 87).

각 사람들이 할 사업

“아비된 자들이여, 내가 그들에게 써 보내는 것은 처음부터 계신 분을 그대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내가 그들에게 써 보내는 것은 그대들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그대들 안에 있어 그대들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요일 2:14, 새번역)

젊은이들이 요긴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일은 많이 있다. ... 이 복음의 마지막 사업 가운데는 차지해야 할 방대한 밭이 있는데, 그 사업은 평범한 사람들의 협력을 이전 어느때보다 더 얻어야 한다. 청년들과 노인들이 모두 밭과 포도원, 작업장에서 구주의 부르심을 받아 당신의 기별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을 것이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킬 특성들을 보신다. 만일 그들이 그 사업에 열중하여 계속 배우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을 위하여 일하기에 적합하도록 하실 것이다. ...

그대는 재능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그대가 갖고 있는 것은 다만 위탁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스스로의 진실성을 입증할 기회를 주심으로 그대를 시험하고 계신다. 그대는 그대가 가진 모든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 그대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능력, 그대의 기술, 이 모든 것은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청년 지도자, 1908. 3. 3).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젊은이는 생명의 샘에서 떠온 물로 계속 새롭게 된다. 그는 도덕적으로 탁월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폭넓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 그들은 하나님과 영생에 대해 더욱 더 높은 경지에 이르러, 마침내 주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대한 빛과 지혜의 통로들로 삼으시게 된다(교회증언 4권, 624).

올바로 훈련된 우리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일꾼의 군대가 준비된다면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다시 사셔서 머지않아 오실 구세주의 기별이 얼마나 속히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인가! 얼마나 속히 우리 자녀들에게 죄와 해와 고통을 가진 이 세상의 소유 대신에 그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 영영히 거하리로다”(시 37:29),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사 33:24),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사 65:19)라고 한 그 곳을 유업으로 받게 할 것인가!(교육, 271).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놀고 섰는가?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행 1:8, 새번역)

각 시대의 신자들은 첫 제자들이 받았던 사명을 받았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 전할 성스러운 진리를 받았다.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언제나 자신의 자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고, 그들의 재능을 당신의 봉사사업에 지혜롭게 사용하는 적극적인 선교사들이었다. ...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은 세속적인 야심을 버리고,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신 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선행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 그들은 동정과 연민이 가득한 마음으로 죄인들에게 구주의 사랑에 관한 지식을 전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런 사업에는 힘든 노력이 필요되지만 풍성한 보상을 가져온다. 성실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구주께로 인도된 영혼들을 보게 될 것이다. ...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계 22:17). 온 교회가 이 초청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초청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산과 골짜기에 “오라”고 외치면서 그 기별을 널리 전해야 한다. ...

구원의 기별을 들은 수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봉사의 어떤 분야에 종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터에서 할 일 없이 지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마 20:6, 7)고 말씀하고 계신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하고 있지 않는가? 그들로 하여금 설교단에 설 수 없다고 핑계하고 있기 때문인가? 그들로 하여금 설교단 밖에는 수 많은 헌신적인 평신도들이 해야 할 큰 사업이 있음을 깨닫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봉사의 정신이 온 교회를 사로잡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의 사명을 수행하며 본국이나 해외의 필요한 지역에서 지정된 일을 할 때에는 세상은 머지않아 경고를 받게 될 것이며,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돌아오실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사도행적, 109~111).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보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 10:8)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든 하사품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치있고 아름다운 사물들 가운데서 베푸신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마움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의 손에 놓여 있다(교회증언 5권, 736).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6:15)고 명령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은혜에 관한 지식을 확장하는 사업을 사람들에게 할당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가르치게 하시는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지상에서의 그분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을 요구하셨다(교회증언 9권, 255).

모든 사람이 다 많은 연금을 드리고 큰 일이나 훌륭한 행동을 할 수는 없으나 모든 사람이 다 극기를 실천할 수 있고, 구주의 이타심을 드러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선물들을 주님의 연보케에 드릴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불과 몇푼 어치밖에는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실하게 드러진 모든 선물은 주님께서 받으신다(교회증언 9권, 54, 55).

많은 사람들은 극기의 행동들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이 절약될 수 있는지를 깨닫고는 놀라게 될 것이다. 희생의 행위로 절약된 적은 금액은 극기를 요구하지 않는 그보다 더욱 큰 금액보다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이룰 것이다(교회증언 9권, 157, 158).

베푸는 정신은 하늘나라의 정신이다.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은 십자가 상에서 나타났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셨으며 후에는 자신까지 주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되신 구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자선심에 호소한다. 거기에서 실증된 원칙은 주고, 또 주라는 것이다. ... 세상 사람들의 원칙은 받고, 또 받으라는 것이다. ...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치는 복음의 빛은 이기심을 견책한다. ... 하나님의 백성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세속주의와 탐욕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심을 통하여 그들의 재물이 증가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축복을 지상에 나누어 주는 매개자로 삼으신다. ...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의 창조주와 같이 품성이 인자하게 되고 희생적이 되어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스러운 상급에 참여자가 되게 하시려고 자선제도를 세우셨다(교회증언 9권, 254, 255).

이중의 생애

“우리의 사قم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요일 1:3)

우리의 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는 실제적인 체험이다. 우리는 매일의 생애에서 구주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마음에 있는 구주의 평안은 얼굴의 표정에서 빛날 것이다. ... 하나님과의 교제는 품성과 생애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첫 제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제는 사역자들이 능력을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사역자는 스스로 이 능력을 빼앗겨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중의 생애, 곧 생각하며 행동하는 생애, 조용히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치료봉사, 512).

하나님의 단련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천연계와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개인적으로 들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고, 조용해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릴 때,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뚜렷하게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 46:10)라고 분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길이다. 바쁜 군중들과 생애에 긴장된 활동 속에서도 이렇게 새 은혜로 활기를 얻은 사람은 빛과 평안의 분위기로 에워싸이게 될 것이다. 그는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새로이 부여받을 것이다. 그의 생애는 향기를 발할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치료봉사, 58).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드리는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함으로 얻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너무나 조급히 기도를 드린다. 그들은 빠른 걸음으로 급히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앞으로 나가서 잠깐 동안 그 거룩한 경내에서 쉬는 듯 하지만 권고를 받고자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교사와 함께 머물 여유가 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짐을 진 채 일터로 되돌아 간다. 이런 일꾼은 힘의 비결을 배우지 않는 한 결코 최상의 성공에 도달할 수 없다. 그들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을 새롭게 하기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모실 시간을 가져야 한다. ... 그들은 성령의 힘으로 고상해져야 한다. 이 힘을 얻을 때, 그들에게는 신성한 생명력이 소생될 것이다(교육, 260~261).

그릇된 열심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롬 10:2)

행동에 있어서 맹목적이고 결과에 있어서 파괴적인 아무 계획도 목적도 없이 무지하게 떠드는 열성이 있다. 이런 열성은 그리스도인적 열성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적 열성은 원칙을 따르는 것이며, 발작적인 것이 아니다. 이 열성은 진실하고 심각하고 강한 것이고 온 성품을 다하여 도덕적 감각을 활용하도록 분기시키는 것이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보다 더 큰 열성을 요구하는 사업이 있는가? 여기에 소홀히 생각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영생에 관계되느니 만큼 매우 중대한 것이다. 이 문제는 곧 영원한 운명과 관계되는 것이다. 사람은 저희 자신의 화목을 결정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적 열성은 말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원기있고 능률 있게 생각하고 또한 능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적 열성은 열정적 기도와 겸비와 가정상 의무에 충실하게 한다.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적 열성의 열매가 되는 온유와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

아! 영혼의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희생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심히 적다. 말이 많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 사랑하는 체 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말은 하기가 쉽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렬한 그리스도인적 열성, 즉 모든 일을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열성이다. 모든 사람이 먼저 자신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할 것인 바,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 안에 계시는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나이가 가라 폭포가 벼랑을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교회증언 2권, 232, 233).

영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위대한 구속의 경륜에서 그리스도와 하늘 천사들의 협력자가 되는 일은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어떤 일을 이것에 건줄 수 있겠는가!(교회증언 2권, 232).

견고한 터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딤후 2:19)

주님께서서는 매우 충실하고 반석같은 믿음을 가진 한 백성을 두실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당신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며, 당신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야 한다. …

아주 열렬하고 진지하게 진리를 전파하던 목사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원수의 대열에 가담할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말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라고 사도는 말한다. 인간의 신앙과 감정은 변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진리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 …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처럼 확실하므로 사단이 자신의 모든 술책과 흉악한 능력을 다 발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말이 될 수는 없다. 큰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잃도록 전력을 다할 동안 진리는 타오르는 등불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선발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자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배반자의 쓸데 없는 말에 매혹당할 것인가? 우리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의 위치에 설 것인가? 오히려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주여, 저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암흑의 사업과 원수가 되지 않는다면, 원수의 강력한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의 독아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우리는 그를 치명적인 원수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사업은 지금도 전진하고 있다. …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라. …

우리가 행하는 바를 믿는 이유를 알아야 할 때가 왔다. … 우리가 영생을 굳게 붙잡아 다가올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훌륭한 터를 스스로 쌓도록 하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가 아닌, 부활하신 주님의 힘으로 일하여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과감히 무엇을 할 것인가?(교회증언 4권, 594~597).

하늘은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사도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 16: 20).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당신의 교회의 교인들을 보내고 계신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능력이 그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으면 그분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며 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을 치신 사업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렘 1:7~9)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손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하도록 분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거룩한 책임을 맡기셨다.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들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세상에 전달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세상에 나타낼 사람들을 무엇보다도 요구하고 계신다. 세상은 구주의 사랑이 사람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무엇보다도 원하고 있다. 온 하늘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능력을 나타낼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진리를 선포하는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능력을 받았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면, 교회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충성을 다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광스럽게 한다면, 그 교회를 대적할 세력은 없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대한 열심이 제자들을 움직여 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다. 그와 동일한 열심이 구속의 사랑,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고하고자 하는 결심으로 우리 마음에 불붙어야 하지 않을 것인가?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구세주의 오심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사도행적, 599, 600).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심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사 43:2)

하나님께서서는 지상에 한 교회를 두고 계시는데 그 교인들은 선택된 백성들이며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빗나가는 분파들이나 여기 저기에 있는 한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대장이 되시므로 모든 일을 질서있게 행하실 것이다. 그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조정할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잘못을 고치시기 위해 그 일에 참여하여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실은 훌륭한 배를 안전하게 항구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도록 하자.

내가 오래 전에 메인주의 포틀랜드에서 보스턴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그 때에 폭풍이 닥쳐와서 큰 파도들이 여기저기를 때렸다. 상들리에 등들이 떨어졌으며 트렁크들이 공처럼 굴렀다.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아우성 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에 조타수가 갑판에 나타났다. 선장은 조타수가 키를 잡고 있는 동안 그의 곁에서 있었는데, 배의 향로에 대해 두려움을 표시하였다. 그때 그 조타수는 “당신이 키를 잡겠습니까?”하고 물었다. 그러나 선장은 자신에게 그런 경험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일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몇몇 승객들은 점점 불안해 하면서 그 조타수가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하거나 않을까 두렵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조타수는 다시 “당신들이 키를 잡겠소?”하고 물었으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 키를 조정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사업이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 키를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구까지 무사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

그대의 유한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돌보시도록 하라(믿음으로 살리라, 282).

5월 2일(목)

사단이 자기의 노역을 다시 배가함

“여호와와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시 34:7)

우리가 만일 사단보다 강하신 구주의 구원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사단과 그 부하들의 권능과 악함을 당연히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집의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그는 일을 엄중히 하여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는 몹시 주의하나 우리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고, 또 그 공격에 저항할 수 없는 악한 천사들에 대하여서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만일 사단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는 우리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육체를 훼손하고 고통스럽게 하여 생명과 재산을 파괴할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비참과 파괴를 가져올을 유일한 기쁨으로 삼는다.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여 마침내 악령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항상 주의 보호하심을 입어 안전할 수 있는 것이다. 힘있는 천사들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바 된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둘러 막으신 그 경비망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이다.

과거 약 6천년간 계속되어 온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는 미구에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사단은 인류를 위하여 행하시려는 그리스도의 봉사를 깨뜨리고 사람들로 자기가 베풀어 놓은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무척 애쓰고 있다. 구주의 중보하심이 마치고까지, 곧 범한 죄에 대하여 회생을 드리는 일이 다시는 없게 되기까지 사람들을 암흑 상태에 붙잡아 두어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하는 바이다.

사단은 자기의 권력을 거절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는 때, 일반 세상과 교회가 냉담하고 부주의하는 때에는 별로 주의 하지 않는데 이는 그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손에서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영원한 사물에 대하여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하고 부르짖는 때에는 거기에 벌써 사단이 와서 그리스도의 권능과 다툰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가운데 참례한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배에 참석한 자들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각 시대의 대쟁투, 517, 518).

5월 3일(금)

우리 앞에 놓인 중대한 싸움

“사람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

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다. 위기가 세상을 기다리고 있다. 그 어느 시대의 싸움보다도 중대한 싸움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적인 관심과 중요성을 지닌 문제가 되었다. 우리는 이 운동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백성들 앞에 놓인 위험에 대하여 그들을 경고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가? ...

성경상 안식일의 요구와 일요일 제도의 거짓 근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종교적 법률 제정을 위한 어떤 운동도 실상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 양심의 자유를 거스려 싸워온 교황권에 양보하는 행위이다. 일요일 준수가 소위 “불법의 비밀”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적 제도이며,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바로 천주교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 국가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그 정부의 원칙들을 공공연하게 버릴 때, 개신교들은 이 일에 있어서 천주교와 협력할 것인데 그것은 다시 적극적인 전체정치가 되기 위해 그 기회를 오랫동안 열심히 기다려 온 전체 정치에 활기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

천주교나 천주교의 원칙들이 법률 제정으로 다시 세력을 얻게 되면, 일반 대중의 잘못을 좇아 양심과 진리를 희생시키지 않을 사람들에게 대해 박해의 불꽃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악이 바야흐로 실현되려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위험을 알려 주는 빛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발휘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흠없이 설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들이 경고를 받지 않은 채로 이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도록 버려 두고서도 안심할 수 있겠는가?

세상 통치자들의 법이 우주의 최고 통치자 되시는 분의 율법과 반대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분께 변함없이 충성할 것이다(교회증언 5권, 711~718).

성경 말씀을 억지로 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벧후 3:16)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할 것이 없다는 태도는 사단이 가장 잘 쓰는 기만의 하나이다. 사단은 진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바 되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의 심령이 성결하여질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 교리, 지어낸 말, 복음이라 할수 없는 복음을 그 대신으로 퍼뜨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 …

일반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성경 말씀을 애매하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과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여러가지 모순된 이론을 발표하는 것은 사단의 소행이니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교구의 여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 자기의 마음에 맞는 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성경을 곡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반적 폐풍은 곧 이로 말미암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신중히 연구하지 아니하고 무슨 새로운 기이한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릇된 교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성경의 어떤 절을 그 전후 관계없이 끌어내고 혹은 한 절 중반 절만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려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 다른 반 절을 연구함으로 그 절 전체의 의미는 전연 반대의 의미가 되는 일들이 있다. 그들은 뱀과 같이 교활하게 전연 관계없는 성경절들을 그릇 인용하여 자기들의 육적 정욕을 마음껏 행하기 위한 증명을 삼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성경을 짐짓 곡해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억측으로 성경의 표상이나 전형을 가기의 주장과 일치하도록 해석하여 성경 자체가 성경의 해석자인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의 억설을 성경의 가르침인 것 같이 설명하는 자들도 있다.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기도하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과 즐거움으로 교훈을 듣는 그런 정신으로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해석하기 곤란한 것은 물론이요 쉬운 구절일지라도 그 진정한 의미를 곡해하는 일이 많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매우 명료하다. 모든 참되고 성실한 사람들은 마침내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 97:11)셨다. … 교인들이 마치 감추인 보물을 찾듯이 열심으로 진리를 탐구하지 아니하면 아무 교회도 성결한 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520~522).

하나님께 대한 거짓 이론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롬 1:21)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스며있는 하나의 본질적 요소라고 하는 이론은 사단이 만들어 낸 가장 교활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손상시키고 있다.

범신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주님의 진리의 빛은 이러한 이론들이 영혼을 파멸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암흑이 저들의 본질이며 관능이 저들의 영역이다. 저들은 본능적인 마음을 만족시키며 기호를 방종하게 한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결과로 이러한 이론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

인류의 마음에서 죄악의 줄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의 보혈을 통해서만 오직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된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경향을 저지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능력은 하나님에 관한 유심론적 이론을 무력하게 만든다. 만일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만연해 있는 하나의 본질적 요소라면 주님께서서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 그러므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인간은 오직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계발시키기만 하면 된다.

저들의 논리적 결론에서 나온 이러한 주장들은 전 그리스도교계를 휩쓸고 있다. 저들은 속죄의 필요성을 제거해 버리고 인간을 그 자신의 구주로 만든다.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이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고, 그런 이론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든 성경을 마침내 한갓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하게 될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저들은 덕을 악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간주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그분의 통치권에서 물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의 이론을 의지한다. 속절없는 인간은 악을 저항하고 극복할 실제적인 힘이 없다. 영혼의 방어벽은 무너지게 된다. 사람은 죄를 저항할 아무런 장벽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제어하는 힘이 일단 거절되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깊이 죄악 속으로 빠져 들어갈지 아무도 모른다.

이와 같은 강신술적 이론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는 자들은 분명히 저들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영생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복음전도, 601, 602).

거짓 지식의 위험들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딤후 6: 20)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뉴햄프셔에 있었다. 그중 어떤 것은 자유 연애주의로 이끄는 그들의 생각들로 진리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믿이 내게 주어졌다. 나는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추상적인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음을 보았다. ...

그들은 다른 견해들을 또 주장하면서 일단 성화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복음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그들의 거짓 이론들은 기만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요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었다. 저들은 미묘하게 가장된 이러한 이론들이 주는 해독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에게 강신술적 권능을 주고 있었다. 큰 죄악이 벌써 초래되었다.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다는 이론은 성화된 사람들의 감정은 결코 타락할 위험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하였다. 이와 같은 확신의 결과로 성화되었다고 공언은 하지만 생각과 행동이 전혀 순결하지 못한 마음들의 악한 욕망대로 행동하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천연계에 편만해 있다는 비 인격적인 신에 관한 이론과 거룩한 육신에 관한 이론을 주장하고 있던 사람들을 견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실례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장래에는 진리가 사람들의 교훈들로 위조될 것이다. 기만적인 이론들이 안전한 이론처럼 제시될 것이다. 거짓 지식은 사단이 하늘 궁정에서 사용하였던 방법 중의 하나인데 그는 오늘날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짜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탄원하는 바이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친구약 전서가 있다. 우리는 추측이나 거짓된 흥분에 빠질 까닭이 없다.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 나타난 진리의 금향로에는 영혼들을 확신시키고 개심시킬 진리들을 그분처럼 단순하게 나타내라. 그리하면 그대가 전하는 기별의 능력을 사람들이 자연히 느끼게 될 것이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론이나 시험을 제시하지 말라(복음 전도, 600, 601).

사단의 기만적인 걸작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신 29:29)

물질계의 일이나 인류가 가진 지식은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다. 사람들의 과학적 방면의 견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까닭이다. 그런데 단순히 학설이나 가설을 과학적 사실처럼 용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게 일컫는 지식”(딤후 6:20)으로 시험되어야 할 것처럼 여기는 바 되었다. 창조주와 그분의 사업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소위 자연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간주된다. 친구약 성경의 기록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고 그의 무한한 능력을 자연에 돌리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닦은 끊겼은즉 무신론의 암초에 부딪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리하여 신앙을 그르치고 악마에게 유혹되는 자가 많다. ... 그리고 인간의 철학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아니한 영원한 신비까지를 절대적으로 연구하고 설명하려고 한다. 만일 사람들이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것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해할 것 같으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인정하게 되고 자기의 너무나 미소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를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 깨닫도록 하지 않으신 바를 알리고 애쓰고 짐작하고 추측하도록 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의 걸작이다. 이것이야말로 루스벨이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잃어버린 원인이었다. 하나님의 모든 경영의 비밀을 자기에게는 말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그는 불만하여지고 자기의 그 높은 지위의 적당한 임무에 대하여 보여 주신 바를 전연 무시하여 버렸다. 그는 또한 천사들에게도 그와 같은 불만을 일으킴으로써 저들도 타락하게 하였다. 오늘날도 그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정신을 넣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명령을 무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522, 523).

때와 기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행 1:7)

하나님께서는 때와 기한을 당신의 권한에 두셨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장차 다가올 큰 날에 설 수 있도록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지체시킬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으나 정확한 때를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은 대장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의 위치에서 있어야 한다. 그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를수록 깨어 있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일해야 한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예언할 수 없을 것인데, 그 이유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대는 주님께서 일년, 이년 혹은 오년 내에 오실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십년 혹은 이십년 내에는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 주님의 강림을 연기시켜도 안될 것이다. …

우리는 성령이 내리시는 정확한 때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복음전도, 221).

나는 옛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인줄 잘못 믿고 있는 자들을 주목하였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곳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견해는 셋째 천사의 기별아래 행해지는 주님의 현대 사업으로부터 관심과 흥미를 빼앗으려고 고안된 것이다. 그 이유는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마음을 거기에 두게 됨으로 그들과 다른 이들이 그곳에 가기 위하여 재정을 현대 진리의 사업에 쓰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한 사업이 진정한 선을 이루지 못할 것과 얼마 안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도록 하는 데도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그분의 재림을 믿도록 하는 데는 더욱 더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될 것을 보았다(초기문집, 75).

노와의 때와 같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눅 17:26)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두려운 상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았다. 자비의 천사가 떠나가려고 날개를 접고 있었다. …

하나님의 율법은 폐하여졌다. 우리는 혼란과 당황, 빈곤과 기근, 지진과 홍수를 보고, 그 소식을 듣는다. 사람들은 두려운 불법을 범할 것이며 이성이나 감정이 지배권을 장악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거민들처럼 신속히 타락하고 있는 세상의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곧 당신의 사업을 끝내시고 죄를 중지시키실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자행되는 죄악들에 대해 내 앞에 나타난 장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끼칠 수 있을 것이었다.

인자께서 나타나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제지하시는 손길을 세상으로부터 거두고 계시므로 머지않아 사망과 파괴와 격증하는 범죄, 그리고 불쌍한 자들에 대해 자신들을 높인 부자들에게 대한 잔인하고 악한 행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떤 장소나 처지에서라도 안전함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 대리자들은 살상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 훈련받고 있으며 그들의 발명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 …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호소한다. … 많은 사람들의 생애가 너무나 미묘하고 마땅치 않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의미한다. …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일함으로 그분과 협력하라. 영혼의 성전에서 우상의 형태를 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쫓아 내버려라.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며 그분의 시간은 그대의 시간이다. 불신을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상은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들어야 한다(교회증언 8권, 49~53).

장차 올 놀라운 사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전 4:9)

세상은 무대이다. 배우들, 곧 지상의 거민들은 마지막 큰 연극에서 자신들의 몫을 담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류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연합할 때를 제외하고는 연합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 당신의 반역적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혼란과 무질서의 요소들이 잠시 동안 지배권을 장악하도록 허락하고 계시지만 세상은 아직 사람들의 손에 맡겨져 있지 않다. 배후에 있는 한 세력이 그 연극의 마지막 큰 장면들을 조종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곧 사단이 그리스도처럼 나타나서 모르는 사이에 서로 결속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각종 불의와 기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연합하기 위해 정욕에 굴복한 사람들은 원수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원인에는 결과가 따를 것이다.

범죄는 거의 그 한계에 달하였다. 혼란이 세상을 채우고 있으며 아주 놀라운 사건이 머지 않아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다. 종말은 매우 가깝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머지 않아 세상에 닥칠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랄만한 사건에 대비해야 한다. …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자고 있는가? 만일 우리 기관에 있는 청년 남녀들로서 아직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때의 징조들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들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무아의 정신을 가진 일꾼들에게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고, 당신을 위해 생애하고 일하며, 십자가를 지고, 당신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오도록 요구하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하찮은 봉사를 드리면서도 쉽사리 만족한다. 그들의 신앙은 미약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주셨다.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열망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들 영혼들은 무한한 댓가를 치루고 사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들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들은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영원히 멸망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교회증언 8권, 27~29).

청년들과 마취제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 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일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전 11:9)

사단은 우주의 첫 반역자였는데, 그는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로 언제나 인간 가족의 각 사람을 바로 자기처럼 하나님을 떠난 배교자로 만들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그는 인간을 멸망시킬 계획을 고안하였으며, 불법적인 식욕의 방종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하였다. 그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금지된 과일을 먹도록 함으로 그들을 타락시켜 에덴에서 쫓겨나도록 하였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담의 처지에 있었다라면 그토록 단순한 시험에 결코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진 그대들에게는 의지력, 곧 시련을 당할 때 원칙에 충실함을 보여줄 중대한 기회가 있다. …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생애에서 아무런 죄악도 보실 수 없는가? …

사단은 도처에서 젊은이들을 파멸의 길로 유혹하고자 애쓰고 있다. 만일 그가 일단 그들의 발을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하면, 타락의 길로 재촉하여 방탕한 일을 하게 하며, 마침내는 희생제물이 된 그들이 부드러운 양심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그들 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들은 차츰 자제력을 잃어버린다. 그들은 술이나 알콜, 담배 그리고 아편을 사용하는 나쁜 습관에 빠지게 되고, 점차적으로 심하게 타락하게 된다. 그들은 식욕의 노예가 된다. 그들은 전에는 존경했던 권면의 말씀을 경멸하게 된다. 그들은 오만한 태도를 취하여 타락의 종이 된 것을 자유를 얻은 것으로 자랑한다. 그들은 이기심과 타락한 식욕과 방종을 자유라고 말한다. …

사단은 인류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타락한 인류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자 무한한 댓가를 치루셨다. … 타락한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접근할 수 있으며,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통하여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절제생활, 273, 274).

5월 12일(일)

이교세력의 외적시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많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딤후 4:3)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것발 아래 신속히 정렬하고 있으며 그들의 대장들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다.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위해 깨어 기다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무리들은 처음 대 반역을 한 대장의 지휘 아래서 신속히 타락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가진 신을 찾는다. 그런데 사단은 그들이 구하는 신을 의인화 한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거절한 결과 너무도 미혹되어 버렸으므로 가짜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찬양을 인간이 받는다(믿음으로 살리라, 322).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교적 세력의 외적인 시위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이교의 신들은 자신들의 현저한 능력을 나타낼 것이며, 세상의 도시들 앞에 자신을 드러낼 것인데, 이와 같은 일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기로 구별된 사람들의 악한 품성과 유혹적인 영향을 갖가지 우상들로 요한에게 나타내셨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상 비밀을 주의 깊게 파헤칠 지혜가 필요하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전할 기별을 주셨다. 일요일 법령을 특수한 세력으로 만들고, 때와 법을 변경하고, 유일의 참 안식일인 창조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굳게 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자 계획을 세운 죄악의 사람의 악함을 폭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셨다. ...

마지막 시대의 위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처해 있는 위험을 경고해야 한다. 예언이 나타낸 엄숙한 광경들이 취급되지 않은채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라. 만일 우리의 백성들이 반쯤 만이라도 깨어 있고, 계시록에 묘사된 사건들이 가까움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는 개혁이 행해질 것이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믿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하신다(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117, 118).

5월 13일(월)

도시들의 소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딤후 3:13)

당신의 백성들이 도시로 몰려 들어와 고지대의 가옥들이나 셋집에 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의 첫 조상을 천원계의 아름다운 풍경과 매력적인 소리로 둘러싸인 정원에 두셨는데, 그분께서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런 풍경과 소리를 향유하기를 바라신다(교회증언 7권, 87).

도시들은 소란과 폭력과 범죄가 가득할 것이며 이런 일들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증가되어 갈 것이라는 빛이 내게 주어졌다(교회증언 7권, 84).

“도시를 떠나라, 도시를 떠나라”—이것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게 주시는 기별이다(자서전, 409).

도시들에 편만한 소란과 소동, 노동조합과 파업으로 초래되는 상태들은 우리의 사업에 큰 장애를 준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특정한 조합으로 결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인정해서는 안되는 어떤 세력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으며 악한 자들은 태워지기 위해 자신들을 단으로 묶고 있다.

우리는 지금 맡겨진 모든 능력을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업을 행하면서 우리의 개성을 보존해야 한다. 우리는 비밀 집단들이나 노동 조합들과 결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서야 한다(교회증언 7권, 84).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불경건한 도시들은 멸망의 비로 청소될 것이다. 지금 도시들의 거대한 건물들과 넓은 지역에 닥치고 있는 참화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일어날 일을 나타내고 계신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마 24:32, 33)(교회증언 7권, 83).

극심해 가는 편견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요일 3:13, 14)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합된 자는 인종이나 계급에 대한 편견을 초월한다. 그의 믿음은 영원한 진실을 붙잡는다. 기록하신 진리의 주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채워져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이다(교회증언 9권, 209).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합하여 그분과 하나가 되지 않는 한 인종문제에 관한 모든 일들을 주님의 명령에 일치하게 조정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 교회의 백인이나 유색인종이 다같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 두 부류의 사람들 중의 몇몇 분별없는 사람들 때문에 인종문제가 일어날 때면, 성화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품성의 특성들을 나타낸다.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법을 배우지 않았음으로 호전적인 요소들을 쉽사리 일으킨다. 그런 경우에는 최상권을 얻고자 성화되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게 된다(서신 105, 1904).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인종에 대한 편견이 심해지며, 많은 곳에서 백인들이 유색인들을 위해 일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우리의 사업에 공감하지 않는 백인들은 유색인들과 합세하여 우리의 교훈이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운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안식일 문제에 어려움을 일으킬 것이다. 백인 목사들과 유색인 목사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파괴하고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적대감을 불러 일으킴으로 그릇된 말을 할 것이다.

악마의 세력들은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유색인들 가운데 선포되지 못하게 하고자 아주 교묘하게 일하고 있다. 사단은 복음 사역자나 교사가 백인들과 유색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편견을 제거하기가 가장 어렵도록 만들고자 일하고 있다.

지혜의 길을 따르도록 하자. 쓸데없이 적대감을 일으킬 일, 복음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을 방해할 일은 결코 하지 않도록 하자(교회증언 9권, 207~208).

순결을 소유할 것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8)

많은 청년들이 독서에 매우 열중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읽는다. 재미있는 연애소설이나 불순한 그림들에는 타락시키는 감화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열심히 탐독한 결과로 상상력을 불결하게 만든다. 자주 여인들의 나체화들이 차내에서 판매된다. 이와 같이 더러운 그림들이 ... 판화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벽에 걸려 있다. 지금은 도처에 타락이 충만한 시대이다. 안목의 정욕과 타락한 정욕은 바라보고 읽음으로써 깨우쳐진다. 마음은 상상을 통하여 타락된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천하고 비열한 정욕을 일으키는 장면들을 생각하므로 쾌락을 구한다. 불결한 상상을 통하여 보게 되는 죄악적인 장면들은 도덕력을 저하시키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로 하여금 정욕에 방종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을 짐승의 수준까지 끌어 내려 마침내는 영원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죄악과 범죄가 따른다. 불순한 생각을 연상시킬 것들을 읽거나 보는 일을 피하라. 도덕적 및 지적 능력들을 배양하라. 이들 고상한 능력들이 평범한 이야기 책들을 많이 읽으므로 약해지고 그릇되지 않도록 하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면, 건전한 마음과 바른 신앙 원칙들을 소유할 수 없다. 성경에는 가장 흥미로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고, 더욱 고상하고 훌륭한 생애로 인도하는 지침이 있다. 만일 그들의 상상력이 소설적인 성격의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오염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그 책을 일찌기 읽은 책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이라고 확언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대들의 죽을 수 밖에 없는 몸을 변화시켜 당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시고자 두번째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대들은 높은 수준의 행동에 달해야 한다. 그대는 지금까지 일해온 것보다 더 고상한 관점에서 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불멸의 은사를 받을 사람들에게 속하지 못할 것이다(교회증언 2권, 410, 411).

평화를 외치는 자들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사 56:12)

악한 종은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말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비웃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그리고 행동과 말로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었다고 선포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주께서 속히 오신다는 확신을 몰아낸다. 그의 감화력으로 사람들이 뻔뻔스럽고 부주의하게 된다. 그들은 속된 마음과 무감각 상태로 굳어버린다. 세상의 정욕과 타락한 생각이 마음을 점령한다. 악한 종은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쾌락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연합한다. 그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면서 동료 종들을 때린다. …

그리스도의 재림은 거짓 교사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들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의 제사장들과 교사들처럼 교회가 세속적인 번영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한다. 그들은 시대의 징조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영감의 말씀은 어떻게 말했는가?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살전 5:3). …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너무도 지체시키고 있다. 그들은 경고를 비웃는다. 그들은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벧후 3:4).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사 56:12)고 뽐낸다. 그들은 더욱 더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계 16:15)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벧후 3:4)라고 경멸하며 질문할 바로 그 때에 징조들은 성취되어 가고 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외치는 동안에 갑작스런 멸망이 닥치고 있다. 진리를 경멸하는 자들과 거절하는 자들이 뻔뻔스럽게 될 때, 모든 분야의 사업이 날마다 원칙을 무시하고 수행될 때, 학생이 성경 이외의 모든 지식을 열심히 탐구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도적같이 오신다(믿음으로 살리라, 342).

보이는 것들과 들리는 것들의 범죄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신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시 101:3, 4)

그대의 편에서 그대의 자녀들에게 깊은 염려를 가짐에는 까닭이 있다. 그들이 자라는 단계마다 시험에 마주친다. 그들이 악한 친구들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만일 그들이 철저히 보호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악한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감지할 수는 없을찌라도 확실히 그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성경을 추하게 만들고 도덕심을 잃게 하는 감화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

어떤 부모들은 너무나 무관심하고 부주의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다니거나 사회 학교에 다니거나 다룰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모들이여, 만일 우리가 택하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빠져 나갈 좋은 길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도 빨리 증가하는 많은 악들을 보는 것을 피할 수 있다. …

아이들과 청년들의 예민한 마음에는 장래에 대한 상상적 묘사인 어떤 장면이 현실적 사실로 보인다. 혁명이 예시되고 법률과 자제의 방벽을 깨뜨려 버리는 여러가지 행동이 묘사된 것을 읽을 때에 많은 아동과 청년들은 거기 표현된 정신을 섭취한다. 그들은 이러한 선정적 저자들이 묘사한 것보다도 할 수만 있으면 더욱 악한 범죄를 감행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같은 감화로 말미암아 사회는 썩어가고 있다. 불법의 종자는 뿌려졌다. 이 결과로 범죄를 거두는 것은 아무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

“나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에 부적당하게 할 뿐인 독서에 귀중한 순간들을 소비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시간과 사상을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 합당하게 되기 위하여 바치겠다. 나는 경박하고 죄된 사물에 관하여 나의 눈을 감겠다. 나의 귀는 주님의 것이므로 나는 원수의 교묘한 논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신의 감화 아래 있지 않는 의지에 나의 의사를 굴복시키지 않겠다. 나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나는 내 몸의 모든 능력을 가치있는 사업에 바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라(재림신도의 가정, 406~409).

강신술과 혁명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 다”(눅 10:27)

청소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돈 모으는 데 대한 욕망, 향락과 방종, 허식, 사치, 낭비, 과도한 행위, 사기, 도둑, 또 파멸같은 죄의 유혹을 당하게 될 때에 과연 어떠한 교훈이 저희로 이들에 대응케 할까?

강신술은 사람은 타락하지 아니한 신인이요, “각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판단할 것이며”, “참된 지식은 사람으로 모든 율법을 초월케 하”고, “범한 모든 죄는 무식한 것이니” 대개 “무엇이나 주는 것은 바르고”, “하나님은 정죄치 아니하시는”까닭이라고 주장한다. 가장 비열한 사람이라도 하늘에 가서 높은 지위를 받는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이 교훈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아무런 일을 하여도 상관 없다. 좋을 대로 살아라. 하늘은 네 집이다.”라고 선언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리하여 욕망이야말로 최고의 율법이고 방종은 자유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서만 책임이 있다고 믿게 된다.

인생행로의 시초에 충동이 가장 강하고 그리고 자체와 순결의 요구가 가장 긴요한 나이에 있어서 받는 이러한 가르침 앞에서 과연 그 덕행을 보호할 만한 것이 있을까? 과연 무엇이 세상으로 둘째 소돔이 되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동시에 무정부주의는 일체의 율법, 곧 하나님의 율법 뿐 아니라 사람의 율법까지를 폐하여 버리려고 하고 있다. 부와 권력의 집중,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부하여지려는 거대한 연결들, 저희들의 이익과 요구를 옹호하기 위한 하층 계급의 단결들, ...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것과 같은 가르침의 세계적 인 유포, 이런 모든 것은 프랑스를 진동시킨 그와 동일한 투쟁으로 전 세계를 휩쓸어 넣는데 유조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이런 세력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혼란 가운데 서려면 저희는 오늘날 지체없이 그 품성의 기초를 놓지 아니하면 안 된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눅 10:27)하신 하나님의 율법, 곧 우리 구세주의 생애와 품성에서 나타내신 바 된 이 대원칙이야말로 유일하고 견고한 기초요 또한 유일하고 안전한 도표인 것이다(교육, 227~229).

인간이 만든 시금석들을 주의하라

“행악하는 자들을 ...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빌 3:2, 3)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마음 가운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시대를 위한 기별에 대하여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무엇인가 새롭고도 이상한 것을 위해 인간적인 시금석들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이 시대의 시금석이 된다(복음전도, 213).

일반적으로 거의 무력해진 하나님의 계명은 이 시대의 시험하는 진리이다. ...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표징으로 구별될 때가 오고 있다. 그들은 이 표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들로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모든 시금석들은 현대 진리를 구성하는 위대하고 중요한 교리들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할 것이다.

극단으로 치우쳐 마음이 좁은 사람들, 진리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때 비판적이고, 날카롭고, 매우 완고한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불러들이는 것은 사단의 소원이요 계획이다. 그들은 더욱 중요한 율법의 문제들, 곧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와 사랑은 등한히 하면서도 까다롭게 될 것이고, 엄한 의무들을 강요하고자 할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몇몇 안되는 이런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키는 온 무리가 편협하고 광신적인 사람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

하나님께서서는 경험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특별한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지켜야 한다.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나 전하고, 자신의 교훈이나 행위에 대해 아무에게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업이 맡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거만한 정신이 일단 우리의 중심을 지배하게 되면, 행동은 일치하지 않고 정신은 통일되지 않으며 일하는 데 안전함이 없을 것이며 사업은 건전한 성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될 것을 기도하셨다.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고자 하는 가장 악한 경향도 막도록 애써야 하며 형제들 사이에서 연합과 사랑의 정신을 지키고자 애써야 한다(복음전도, 212, 213).

마귀도 치료하는 이적을 행함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사단의 오류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으므로 진리의 길을 벗어나가는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의지할 데가 없으므로 갖가지 기만에 빠지고 이상한 교훈의 풍조에 밀려 다니게 될 것이다(복음전도, 362).

나는 장래에는 큰 경성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영적인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된다. 악한 영들은 인간들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활발히 노력하고 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날의 불로 태워지기 위해 단으로 묶이고 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버린 사람들은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궤변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대적을 단호히 물리침으로 근신하고 깨어야 한다. 악한 영들의 감화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

우리는 기만당할 필요가 없다. 사단이 밀접히 관련된 놀라운 광경들이 머지않아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이적들을 행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였다가 갑자기 그들에게서 자신의 흉악한 능력을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분명한 치료의 역사들은 제칠일 재림교인들을 시험에 빠뜨릴 것이다. …

만일 치료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업적들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데 대한 변명을 할 생각으로 계속 불순종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그것은 큰 기만자에게 속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인 것이다. 그는 도덕적 율법을 범한 자이며 사람들에게 율법의 참된 성격을 가리워 버리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책략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가 표적과 거짓 이적들을 행하리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빛의 천사이지 어둠의 천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까지 이와 같은 이적들을 계속 행할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885.11.17).

격렬한 세상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계 6:12)

예언에는 다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과 광경이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이 일이 점점 가까와 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징조까지도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계시록 기자인 요한도 재림 전에 나타날 첫째 징조로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라고 기록하였다.

이 징조들은 19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나타났다. 예언의 성취로 1755년에는 일찌기 기록 중에서 보지 못한 두려운 지진이 일어났다. 일반은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하지만 그 범위는 구라파의 대부분과 아프리카에까지와 그린랜드에도 감진되었고 서인도 제도, 모로코에 가까운 마데라도,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그리고 이란에까지도 감진되었다. 즉 400만 평방마일의 지역에 미친 것이다. 아프리카에도 구라파에 있는 것과 같은 격렬한 진동이 있었다. 엘지어스(알제리아의 수도)같은 곳은 거의 파괴되었으며 모로코 가까운 곳에서는 인구 약 8천 내지 일만명의 시가가 전부 함몰되고 말았다. 또 스페인과 아프리카 해안 일대에는 큰 해일이 있어서 많은 도시와 촌락을 삼켜버리고 대대적 파괴를 일으켜 놓았다.

지진이 제일 격심한 곳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다. 타디스시로 말하면 밀려온 파도의 높이가 실로 60피트에 달하였다고 한다. “포르투갈의 가장 큰 산들 중 어떤 산들은 마치 밀바닥으로부터 뒤집히는 듯이 격렬히 진동되었고”(찰스 리엘경의 지질학의 원리, 495). “지진이 일어난 그날은 마침 성일이었으므로 교회와 승원에는 참례자가 많았는데 그중에서 피난함을 얻은 자는 극히 드물었다.”(앤싸이클로피디아 아메리카나 ‘리스본’ 주석). … 이 두려운 날에 그 큰 재변으로 인하여 생명을 빼앗긴 사람의 수는 실로 9만여명이었다”(각 시대의 대쟁투, 304, 305).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에 관한 소문을 듣는가!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무조직하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의 변덕스러운 돌발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알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그들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매개물들이다(선지자와 왕, 277).

5월 22일(수)

하늘의 징조들

“여호와와 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욥 2:31)

주께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교회가 오랜 기간의 시련기, 곧 1260년간의 법왕권의 박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환란날을 감할 것을 약속하신 후 재림보다 앞서 있을 몇가지 사건을 들어 말씀하시면서 그 첫째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을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막 13:24). 1260일 곧 1260년은 기원 1798년에 마치는 바, 박해는 그 25년 전에 거의 다 마쳤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이 박해가 그치자 곧 해가 어두워질 것이었다. 그런데 이 예언은 1780년 5월 19일에 성취되었다.

“이런 종류의 모든 현상 중에 가장 이상하고 일찌기 보지 못한 것으로는 1780년 5월 19일에 있는 암흑일을 들 것인데 이날 미국 동북부의 뉴잉글랜드 주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온 하늘과 공중이 전연 해석할 수 없는 암흑으로 덮이었다”(R.M.테브스의 우리의 제1세기, 89)

이윽고 암흑은 없어지더니 저녁 때 한 두시간쯤은 하늘이 얼마쯤 밝아져서 태양이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시꺼멓고 뻑뻑한 구름이 드리워 있었다. “해진 후에 구름이 다시 나와서 순식간에 암흑이 심하여졌다.” “그날 밤의 암흑은 낮 동안에 있던 암흑보다 더할 지언정 덜하지 않은 이상하고 두려운 것이었다. 거의 만월이었지만 인공적인 빛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이사야 토마스의 매서쉴세스의 정탐꾼 10권, 472).

그러나 실제로 이 암흑일을 목격한 자의 기록은 이미 그 성취보다 2500년 이전에 선지자 요엘에 의해 기록된 주님의 말씀의 메아리에 불과하다. “여호와와 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욥 2:31).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재림의 징조들을 깨어 기다리며 그 징조들을 볼 때에는 기뻐할 것을 분부하셨다(각 시대의 대쟁투, 306~308).

5월 23일(목)

하늘의 별들이 떨어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마 24:29)

구주께서 일찍이 재림의 징조로 약속해 주신 맨 마지막 징조가 1833년에 나타났다. 예수께서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고(마 24:29)하셨다. 또한 요한은 하나님의 날 전에 있을 영광에 비하여 계시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계 6:13)더라. 이 예언은 1833년 1월 13일의 유성의 소나기로 분명히 성취되었다. 그것은 역사 이후로 지금까지 한번도 없던 광범하고 놀라운 별의 떨어짐이었다. “이때에 온 미국의 하늘은 몇 시간 동안 찬란한 광경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의 생긴 이래 일찍이 없던 하늘의 현상으로 이를 목격한 일부의 사람들은 매우 찬탄하였고 또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 경악하였다.” “그 장엄하고 찬란하고 기이하였음은 지금도 오히려 많은 사람의 머리속에 새로운 바이다. ... 오늘날까지의 어떠한 비도 그때와 같이 사면팔방으로 맹렬히 내린 일은 없다. 다시 말하면 온 하늘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 실리맨 교수가 잡지에 기술한 그 장관은 북미 온 땅에서 관찰할 수가 있었다. 두 시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하늘은 기이한 광경을 이루었다.”(R.M.테브스의 아메리카의 발전, 28).

이로써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 알라”(마 24:33)고 말씀하신 재림에 관한 징조들 중 최후의 것은 실현되었다. 이 징조들이 있은 후에 요한이 본 것은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땅이 흔들리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 서 숨는 광경이었다(각 시대의 대쟁투, 333, 334).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날과 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신비이다(믿음으로 살리라, 344).

예언상의 오토만 제국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
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
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
라”(계 9:14, 15)

차례로 일어나서 그들에게 할당된 시간과 장소를
차지하는 나라들의 역사는 그들 자신으로서의 의미
도 모르는 진리를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증거하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나라와 모든 개인
에게 대하여 당신이 가지신 큰 계획 가운데서 각각
일정한 자리를 지정하여 주셨다. 오늘날 국가도 개
인도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저울추로
말미암아 계량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
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신 것이다. …

현재까지에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역사의 페이지를 봄으로 그 행적을 찾을 수 있는 바,
이로써 우리는 장차 올 모든 사건들도 차례대로 성
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교육, 178).

1840년에는 또한 다른 현저한 예언이 성취되어
일반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사건이 있기 2년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한 유력한 목사인 죠시아
리취는 오토만제국의 몰락을 예언한 계시록 9장의
해석을 출판하였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 그 제국은
서기 1840년 8월 중에 몰락될 것이었다. 또한 그는
이 예언이 성취되기 수일 전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
였다. “처음 기간 곧 150년이 토이기의 승락 아래 된
데아고세스의 즉위로 말미암아 확실히 성취되고 또
한 391년과 15일이 처음 기간이 마치는 동시에 시
작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 마침은 1840년 8월 11일
이 되는 바 그때에 콘스탄티노폴에 있는 오토만제국
의 국위는 몰락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확실히
나는 사실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는다.”(1840
년 8월 1일자 시조 중 죠시아 리취의 글에서).

과연 이상에 밝히 기재된 바와 조금도 어김이 없
는 바로 그때에 터어키는 그 사절들을 통하여 유럽
의 동맹 세력의 보호를 받기를 승인함으로 기독교
나라들의 지배에 복종하였다. 그 사건은 예언을 정
확히 성취시켰다. … 재림운동은 일층 더 힘을 얻게
되었다(각 시대의 대쟁투, 334, 335).

천박한 도덕적 상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엡 5:3)

오늘날의 대화에는 놀라울 정도로 속된 표현이 있
는데, 그것은 사상과 도덕의 저급한 상태를 나타내
고 있다. 진정으로 품위있는 성품이 매우 드물다. 참
된 겸손과 자제를 거의 볼 수 없다. 순결하고 더럽혀
지지 않은 사람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

품고 있는 타락한 생각들은 습관을 이루며, 영혼
은 손상을 당하고 부정하게 된다. 일단 옳지 아니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써만 치료할
수 있는 오점이 생긴다. 그 습관이 확고한 결심으로
교정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타락하게 되고, 이 더러
운 샘에서 흘러가는 물이 다른 사람들도 타락시킨
다.

유혹을 자청하는 남녀들이 있는데, 그들은 스스
로 좋지 않은 교제를 함으로 유혹을 받게 되고, 유혹
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자신을 둔다. 죄에서
안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나 그리고 어
떤 상황에서나 정당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며 결
코 충동에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언제나 그대 앞
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 하면서 행하면 분명히 올
바르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서신 26d, 1887).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 모두에게 도덕적인 위
험들이 매일 격증하고 있다. 우리가 타락이라고 부
르는 도덕적인 혼란은 언제나 야기될 수 있다. 그리
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남녀들과 청
년들에게 천박하고 음탕하고 흉악한 감화를 끼친
다. …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공언하는 믿음과 일치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기 쉽
다. 그들은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위험에 직면한다.
그들은 악과 접촉하게 되고, 억제되지 않은 정욕을
일으킬 광경을 보고, 소리를 듣는다. 그들은 마음이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보다는 악을 선택하게
하는 감화를 받기 쉽다. …

청년 남녀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그
들의 영혼을 도덕적 타락의 점이나 흠이 없도록 정
결케 하는 훈련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
(서신 26d, 1887).

광신주의와 방언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전 14:32, 33)

광신주의의 정신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중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지배하여 왔다. ... 그들은 진리의 샘에서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으며, 셋째 천사의 기별의 정신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광신적인 견해가 고쳐지지 않은 한 이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일도 할 수 없다. ...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소위 은사라고 부르는 것을 행사하고, 주님께서 그 은사들을 교회에 두셨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방언이라는 무의미한 형설수설을 지껄이는데, 그것은 사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리고 모든 하늘도 알지 못하는 방법이다. 그런 은사들은 큰 기만자의 도움을 받은 남녀들에 의해 조작된다. 광신주의, 거짓 흥분, 거짓 방언, 그리고 혼잡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들이라고 생각해 왔다. 어떤 사람들은 이점에서 기만을 당하였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좋지 못하였다. ...

혼계와 조직과 질서에 순종하지 않을 불안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자기의 판단을 체쳐 두고 경험있는 사람들의 판단을 따르게 되면 자유를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서를 지키는 한편, 무모하게 무질서한 광신주의의 정신을 그들의 집회에서 일소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업은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감정이나 느낌은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사단은 의심을 받지 않고도 감정과 느낌을 일으켜 줄 것이다. 이들은 안전한 안내자가 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믿음의 증거들을 철저히 알게 알아야 한다. ... 경박하고 무모하며 농담섞인 정신은 견책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집회 때에는 능력있게 말하고 기도하다가도 집회가 끝나면 거칠고 부주의한 태도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하고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타락시키지 않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향상시키고 그의 취미를 품위있게 하며 그의 판단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의 교제를 위해 그를 완전하게 한다(교회증언 1권, 411~415).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함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 7:15)

나의 남편과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한 몫을 담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업을 행하는 가운데 1843년과 1844년의 사업 기초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 대신 고안하시고 계획하시도록 일해 왔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의 산 대리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들을 성취하셨다. 우리에게는 그릇된 길들이 너무나 자주 제시되었다. 그러나 참되고 안전한 길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분명히 정의되어 있었으므로 나는 사단의 책략에도 무지하지 않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과 사업에도 무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로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주의를 요하는 다른 이론들을 연구할 때, 속임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들을 통하여 내게 나타내신 것들로부터 비취오는 빛에 비추어서 그 이론들의 장점과 단점들을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의 연구를 지도해 주도록 간구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거기에 몰두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방법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그분의 도우심을 아주 열심히 탄원하였는데, 우리의 간구가 허사로 돌아간 적은 한번도 없었다.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되어 다년간 고통스런 경험을 한 결과로 나는 갖가지 거짓 움직임들을 잘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기별을 받고 나는 여러 번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거짓 꿈과 계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별을 내게 보내셨으며,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증거하였다. ...

나는 지난 45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견책의 기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1844년 이후 이런 광신주의의 현상은 거듭 거듭 나타났다. 사단은 오류를 확립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해 왔다. 이와 같은 계시에서 말한 몇가지 일들은 성취되었으나 많은 일들,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은혜의 시기의 끝과 장차 일어날 사건들에 관한 일들은 완전히 거짓임이 드러났다. ...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눅 8:18)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이다. ...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살전 5:21) ... 면밀히 살피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고이다. 그것에 주의하겠는가?(가러뵈은 기별 2권, 75~79).

모조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 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사 8:20)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 교사들의 감화와 암흑의 영들의 기만적인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그들의 보호 수단인 성경으로 향한다. 사단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자 가능한 모든 계책을 다 발휘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그의 기만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될 때마다 악의 왕자는 일어나 더욱 열렬한 활동을 전개한다. 오늘날 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대항하는 마지막 싸움을 위해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후의 대 기만이 머지않아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적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보는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가짜와 진짜가 너무나 비슷할 것이므로 성경 말씀 이외의 것으로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말과 이적은 그들의 증거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

이적을 행하는 것을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단도 일종의 기만을 통하여 진정한 이적처럼 보이는 이상한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사단은 교활한 일꾼이므로 마음을 어둡고 혼란하게 하여 구원의 교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묘한 오류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함정에 빠질 것이다. … 악한 천사들은 매순간 우리가 나가는 길에 나타난다. … 그들은 새로운 입장을 취하고 우리가 보는데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

어떤 사람들은 미혹되어 이와 같은 이적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 목전에서 병자가 치료될 것이다. 우리가 보는 데서 이적들이 행해질 것이다. 우리는 사단의 거짓 이적들이 더욱 완전히 나타날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시련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많은 영혼들이 울무에 걸려 사로잡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과 계명을 떠나 꾸며낸 이야기들에 유의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와 같은 거짓 이적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싸워야 할 싸움을 위해 스스로 무장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경건하게 연구하고 실로 적용하면,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885.11.17).

분열시키는 자들을 경계하라!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눅 17:1)

하나님께서서는 한 백성을 이끌어 내셔서 그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똑같은 것들을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드리신 기도를 성취하도록 준비시키시고 계신다. …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눅 17:21).

하나님은 불과 소수의 사람들, 곧 흠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신다고 믿는 적은 무리들이 계속 일어나서 그들의 감화력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 놓은 사업을 무너뜨리고 흠어버린다.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 곧 셋째 천사의 기별에 굳게 선 사람들이 전력을 다하여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모아들이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은 의심을 품고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 감화력을 끼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악인들의 부활이 없다는 이단을 옹호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어난다. … 어떤 사람은 미래의 시대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품는다. … 그들은 모두 전적인 종교 자유를 원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행동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주장한다. … 이들은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고, 거짓 흥분으로 뒀을 잃고 있으므로 우리들은 그들이 진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 개심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을 포기하던가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불신자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게 될 것이다. …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행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신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선한 행위나 그리스도를 순종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함으로 미움을 받거나, 교양없는 태도 때문에 미움을 받거나, 진리를 이웃과의 논쟁점으로 삼거나, 안식일을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성가신 것으로 만드는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그는 죄인들에게 장애가 되고 거룩한 진리에 치욕이 되므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을 것이다(영적선물 4권, 158~160).

거짓 계시의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19, 20)

지금(1890년)에 살고 있는 몇 사람들은 회의론자들인데 그들은 교회의 은사들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아무런 신앙도 갖고 있지 않다. 그것과 같은 일은 거짓된 계시의 분명한 결과임을 나는 보았다. …

사단은 …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가짜를 강요하고 있다.

사단의 최후의 기만은 성령의 증가가 효력을 잃도록 할 것이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잠 29:18). 사단은 참된 증거를 믿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여러 대리자들을 통하여 교묘하게 일할 것이다. 그는 그들을 그릇 인도하기 위해 가짜 계시들이 나타나도록 하고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섞어 놓을 것이므로 사람들은 아주 넋더리가 나서 계시라는 이름을 지닌 모든 것을 일종의 광신주의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들은 거짓 것과 참 것을 비교해 봄으로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계속 명심하고 높이는 일은 영혼의 유익과 영혼의 순결과 하나님과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에 대한 진정하고 성결한 개념에 가장 심한 해를 끼친다. 그것은 마음을 악화시키고 분별력을 타락시킨다. 순수한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품성에 고상하고, 세련되고, 성결하게 하는 감화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진리가 거룩한 원천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진리의 주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기도드렸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0, 21).

분열을 일으키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일시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는 증거이다. 그것은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놀라운 빛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가려뽑은 기별 2권, 78, 79).

대열에 참가함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이다”(시 69:32)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의 힘 주시는 은혜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도록 하라. 기진맥진하고 근심에 지치고 의기소침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그대의 시선을 압담하고 낙망적인 것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현대진리의 사업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도록 세심하게 감독해 주시는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예수님을 바라보라. …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굳게 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라. 매일 성령을 풍성하게 받고,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기별의 중요성과 범위에 대해 더욱 넓은 견해를 갖는 것이 그대의 특권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그대에게 기꺼이 나타내신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분 앞에서 기다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분별력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더욱 온전한 개념과 영혼 구원을 위한 능력을 달라고 가장 열렬히 간구하라. …

우리는 머지않아 세상에 닥칠 일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지금은 허송세월로 보내거나 이기심을 품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에게 진정한 사명감을 주지 못한다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

명확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요망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철저한 개혁사업의 선두에 설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나는 우리 앞에 위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들이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모든 영혼은 과거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대해 보다 깊고, 보다 참된 헌신을 해야 한다. …

최근에 나는 한 밤중에 내 앞을 지나간 장면들을 통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떤 큰 운동, 곧 신앙 부흥운동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 대열에 가담하고 있었다. …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유의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등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을 것인가? 지금은 등불을 켜고 활동할 때이다(가려뽑은 기별 2권, 399~402).

장래의 일들이 분명히 나타남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7)

은혜의 시기의 마지막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한 여러가지 사건이 밝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자기들에게 제시되지 않은 것처럼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단은 그들이 구원에 대하여 지혜롭게 될 모든 감명을 다 빼앗아 가버리려고 기다리므로 환란의 때가 이를 때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594).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룸에 따라 특별히 말세에 관한 예언을 연구하여야 한다. 신약의 마지막 책은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로 가득 차 있다(실물교훈, 133).

게시록에 질서있게 나타난 엄숙한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 첫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

귀중한 시간이 신속히 지나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 보내신 기별들을 선포하는데 바쳐야 할 시간을 빼앗길 위험이 있다. 사단은 영원한 사실과 관계가 있는 진리의 연구에 바쳐야 할 마음들이 다른 데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증거, 즉 가장 엄숙한 분의 증거가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가장 귀중하고 고상하게 하는 약속들도 있지만 가장 두렵고 엄숙한 의미의 경고들도 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공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증거를 잊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는 아무런 추측이나 아무런 과학적인 기만도 없다. 여기에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과 관계가 있는 진리들이 있다.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는가?(교회증언 8권, 302).

그러나 오직 성경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온 세계를 매혹시키는 기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들은 성경의 증거로 기만자가 변장한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들은 그와 같은 위기를 당하여 성경, 오직 성경만을 붙잡고 놓지 않을 것인가? ... (각 시대의 대쟁투, 625).

장차 있을 일을 위한 준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습 2:3)

최악은 거의 한계에 달하였다. 혼란이 세상에 충만하며, 머지않아 큰 두려움이 인류에게 임할 것이다. 종말이 매우 가깝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공할 사건이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새 자녀 지도법, 555).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가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인데 그 때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 즉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게을리하는 한 가지 경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흔히 예상보다는 실제로 당하는 환란이 가벼운 것이지만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 큰 시련을 아무리 크게 상상한다 하여도 생생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 그 시련의 때에 모든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나타내야 한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겔 14:20)(각 시대의 대쟁투, 622, 623).

진리와 오류 사이의 최후의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의 싸움이요, 성경에 기초한 종교와 전설에 기초한 종교와의 싸움인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582).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키는 큰 이정표들을 연구하여야 한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날의 투쟁을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지금 열렬히 기도해야 한다(우리의 높은 부르심, 340).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지배아래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사건들의 한결같은 자취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인류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무기력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감주를 입고서 싸움터에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용감히 나아갈 것이다(교회증언 7권, 14).

6월 3일(월)

마지막 싸움에 대한 사단의 근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단 7:25)

기독교 시대 동안 인류의 행복의 큰 원수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특별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부지불식간에 방해하는 공작을 하겠다. 나의 추종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칠일 안식일을 제거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주신 그 날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 주겠다. 그날은 백성들의 마음에 살아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날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것이다.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한 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될 수 없는 날을 세우겠다. 나는 하나님이 제칠일에 두신 신성성을 옮긴 이 날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인도 하겠다.”

“나는 나의 대리자를 통하여 나를 높이겠다. 첫째 날은 찬양을 받겠고 개신교계는 이 거짓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의 세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겠다.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란 말을 나는 내 안식일의 편에 적용되도록 하겠다.”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멸시의 특별한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표징? -나는 일곱째 날의 준수를 지상의 권위자들에 대한 불충성의 표징으로 삼겠다.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중히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칠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겠다. 음식과 의복의 결핍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선지자와 왕, 183, 184).

안식일은 진리 중 특별한 논쟁점이 되기 때문에 충성에 대한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최후의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 사이에는 경계선이 그어질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5).

6월 4일(화)

안식일 준수자들에 대한 마귀의 책략

“울레를 빙자하고 잔해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 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시 94:20, 21)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의 위험들에 접근할 때 사단은 그들의 믿음을 뒤엎기 위한 가장 성공적인 계획에 대해 자기의 사자들과 진지한 협의를 한다. ...

큰 기만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안식일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큰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안식일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이 그 날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했다. 이제 이 일을 지지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상과 연합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식별력이 진리에 대해 어두워져서 이성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관례와 전통을 따르도록 이적과 기사를 행해야 한다.”

“나는 인기있는 목사들을 충동하여 그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계명들로부터 떠나게 할 것이다. ...”

“그러나 우리의 중요한 관심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로 구성된 종파를 침묵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대중들이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과 세속적으로 현명한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권위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세운 안식일은 가장 가혹하고 엄한 법으로 강요될 것이다. 그 법을 범한 사람들은 도시와 마을에서 쫓겨나와 굶주림과 일용품의 결핍을 당할 것이다. 일단 우리가 세력을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의 안식일을 범하고 사형의 형벌을 받게 될 때가 오면, 지금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극단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전에 우리는 ... 참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야 한다. 그들은 진리를 믿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판단력을 혼란하게 하고 식별력을 파괴할 식욕이나 정욕의 방종이 그들을 타락하게 할 것이다.”(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편면, 472, 473).

짐승의 우상을 만듦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끄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계 13:14)

짐승의 우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할 큰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가 마쳐지기 전에 만들어질 것이다. ...

계시록 13장에 이 문제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그 후에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끄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할 시련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을 입증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정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 (서신 11, 1890).

요한은 교회와 세상 세력 사이의 마지막 큰 싸움을 보는 동안 충성된 자들의 마지막 승리와 구원도 바라보게 되었다. ... 그는 싸움터의 연기와 소음을 바라보고 나서 “그 이마에” 짐승의 표 대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씌여져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시온 산 위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교회증언 5권, 572).

배도가 길을 예비함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니”(살후 2:3)

초대 교회는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서 타락하였을 때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었으나 오히려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상 권력의 도움을 구하였다. 그 결과 교황권, 즉 국가의 권력을 지배하여 자신의 목적, 특히 “이단”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을 진척시키기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하는 한 교회가 설립되었다. ...

교회가 세속적인 권세를 잡을 때에는 언제나 그 권세를 자기 교리에 반대하는 자를 벌하는 데 사용하였다. 세속적인 세력들과 동맹함으로써 로마교의 발자취를 따른 개신교들도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욕망을 나타내었다. 영국 교회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자기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을 압박한 것은 그것의 한 실례가 된다. 16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동안 국교도가 아닌 무수한 목사들은 자기가 속한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목사나 일반 신도를 물론하고 과료, 투옥, 고문, 순교를 당해야 했다.

초대 교회가 정부의 도움을 구한 것은 실상인즉 배교였으며 그것이 곧 짐승-법왕권의 발전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나서)”(살후 2:3)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단서가 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443, 444).

성경은 이 때를 가리켜 사단이 모든 힘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살후 2:9, 10) 일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사단의 역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신속히 증가하는 암흑과 많은 오류와 이단과 기만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사단은 세상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그의 기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큰 배도는 밤중과 같은 깊은 암흑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이요, 눈물을 흘리는 밤이요, 핍박의 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암흑의 밤에도 하나님의 빛은 비칠 것이다(선지자와 왕, 717).

6월 7일(금)

강신술의 기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요일 4:1)

강신술이란 다만 인간의 속임수단에 불과하다고 믿던 자라도 한번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을 대하게 되면 곧 기만을 당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553).

교회가 강신술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육욕적인 마음에 부과되었던 속박이 제거될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공언은 가장 비열한 죄악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 될 것이다. 강신술의 현상을 믿는 믿음은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에 이르는 문을 열어 줌으로 교회 안에서 악한 천사들의 감화가 느껴질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03, 604).

인기있는 목사들도 강신술을 성공적으로 격퇴할 수 없다. 그들은 양떼를 강신술의 악한 감화에서 보호할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강신술의 많은 슬픈 결과들이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짓밟고, 그 대신 꾸민 이야기들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교회증언 1권, 344).

사단은 세상을 기만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다. 그의 사업의 기초는 그가 에덴에서 하와에게 한 보증의 말로 이미 놓여졌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4, 5). 그는 조금씩 조금씩 강신술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자신의 기만의 걸작품을 위한 길을 준비하여 왔다. 그는 아직까지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지 않았지만 마지막 남은 때까지는 그것을 다 이룰 것이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계 16:13).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 이외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기만의 대열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치명적인 방심 상태로 신속히 빠져들고 있는데 그 방심상태는 하나님의 진노의 내릴 그때에야 깨우쳐질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561, 562).

6월 8일(안)

강신술과 일요일 법령의 쟁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사 8:20)

강신술을 통하여 이적이 역사하는 능력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결심한 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신과 교통하는 자들은 마치 일요일 신성설을 거절하는 자들을 설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자처하고 국가의 법률을 하나님의 법률과 같이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사악과 부패를 한탄하고 도덕적 타락의 상태가 일요일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종교 교사들의 증언에 동의하여 이러한 선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는 큰 분노가 격발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590, 591).

이 강신술이 가르치는 바를 반대하는 자들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단과 그의 천사들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높은 곳에 있는 권능과 권위와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 것이다. 사단은 하늘 사자들의 능력으로 격퇴되지 않으면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구주께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그를 대항하신 것처럼 그를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사단은 그리스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자신의 기만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의 교훈을 인용하여 악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위기의 때에 설 사람들은 성경의 증거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가장하여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을 주장하는 마귀의 영들을 대하게 될 것이다. 이 방문자들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동정심에 호소할 것이며 그들의 기만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적을 행할 것이다. 이런 때에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며 현재에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이에 대항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559, 560).

인간의 모습을 한 사단의 대리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대항하기 위한 이 마지막 큰 싸움에 참가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을 한 하늘 천사들도 그 싸움터에 나타날 것이다. 적대되는 이 두 무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큰 장면이 닫혀질 때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909.8.5).

6월 9일(일)

거짓된 신앙 부흥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살후 2:8, 9)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두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서 사단의 강신술로 행할 특별한 일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살후 2:9)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였다(부조와 선지자, 399).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중에는 사도 시대 이래로 일찍이 보지 못한 근원적인 경건을 위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 자녀들의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 때가 이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떠나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많은 목사와 신자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특별한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기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 사단은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을 꾸며 냄으로써 이 일을 방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의 기만적인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그곳에 내린 것처럼 보이도록 할 것인데 그곳에서 소위 큰 부흥이 일어난듯이 일반에게 생각되도록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볼 때에 그 실상은 전연 딴 신의 공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다고 기뻐 날뛰는 것이다. 이와같이 사단은 종교적 가면 아래서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교계에 확장하기에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464).

젊은 남녀들이 추켜 올림을 받아 자신들을 아주 놀라운 은총을 받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특별한 의식이 있는 후에 사람들이 개심할 것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부절제와 방종이 도입되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가려뽑은 기별 2권, 59).

6월 10일(월)

짐승의 우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계 13:12)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반드시 그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로 하여금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이란, 즉 자기의 교리를 강제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으로 생겨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

그러나 법률로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고 온 세계에 진정한 안식일에 관한 사실이 밝히 나타나는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교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을 복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도 법왕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교에 복종하고 로마교가 지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리하여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라고 선포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의 최상권의 표로 정한 것을 높이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그는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

쟁투의 결과로 온 그리스도교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과의 두 종류로 나누일 것이다. 비록 교회와 국가가 그 권력을 다하여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계 13:16) 강제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그것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밧모의 선지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계 15:2, 3)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각 시대의 대쟁투, 443, 445, 449, 450).

더욱 분명하게 전파될 안식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6, 7)

환란의 때가 시작될 즈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선포하였다(초기문집, 33).

여기에서 언급된 “환란의 때가 시작될 즈음”이라는 말은 일곱 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아직 성소에 계실 때이다. 구속사업이 마쳐지려는 그 때 땅 위에는 대 환란이 이르겠고 열방들이 분노하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그 때에 “늦은 비”또는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있을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며 그리하여 성도들을 마지막 일곱 재앙에서 피하여 서도록 준비시킬 것이다(초기문집, 85, 86).

[계시록 14장의 천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기 직전에 세상에 선포될 기별을 전한다. ...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사람들의 관심은 언약 궤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짓밟힌 율법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성별하시고 지키도록 명하신 제칠일을 지키는 대신에 주일 중 첫날을 지키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변경된 이유를 찾고자 성경 말씀을 연구하게 된다. 일요일을 지키는 관례에 대한 아무런 성경상 근거를 찾지 못한 그들은 의심을 품게 된다. 우리는 인기가 없는 진리를 받아들이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람의 계명을 계속해서 지킬 것인가? 그들은 성경을 펴놓은 채로 울며 기도하다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여 마침내 진리를 확신하고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입장을 취한다(영문시조, 1887.5.5).

반복되어야 할 둘째 천사의 기별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계 14:8)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는데 이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된 미국의 교회들에 가장 잘 적용된다. 그런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거절한 결과로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였으나 그 타락은 극도에 달하지는 않았었다. 그들이 이때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계속 거절하자 더욱더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도다 하고 말하게 되지는 않았다. 미국은 그 때까지도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이렇게 행하도록 하지는 않았다(각 시대의 대쟁투, 389).

하나님께서서는 바벨론 중에 한 백성을 두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내심을 받을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04).

이 기별은 둘째 천사가 전한 기별과 동일한 기별이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바벨론의 거짓 교리들이다. 바벨론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준 사단이 에덴동산에서 처음으로 하와에게 한 거짓말, 즉 사람이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거짓말을 되풀이하였다. 바벨론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으로 그와 비슷한 많은 오류를 광범위하게 전하였다. ...

세상에 대한 경고를 위한 마지막 사업에는 교회들에 대한 두가지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이다. 또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음성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하늘로부터의 한 음성이 들린다. “내 백성이 거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SDA 성경주석[화이트주석] 7권, 985).

안식일과 일요일의 대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계 14:9, 10)

지금까지 셋째 천사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흔히 민심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로 밖에 간주되지 않았다. 국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연합할 것이라는 예언은 아무 근거도 없고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되어 왔다. ... 그러나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그토록 오랫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던 사건이 다가옴을 보게 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큰 결과를 거둘 것이다. ...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바벨론의 죄악은 드러날 것이다. 세속의 권력으로 교회의 의식을 강요한 두려운 결과들, 강신술의 공격, 은밀하나 신속한 교황권의 발전—이 모든 일들이 폭로될 것이다. 이 엄숙한 기별들로 사람들은 동요할 것이다. ...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사실인가?’ 하는 열렬한 질문을 가지고 그들의 이전 교사들을 찾아갈 때 목사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달래고 깨우쳐진 양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신화들을 제시하고 순조로운 일들을 예언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사람의 권위에 만족하기를 거절하고 분명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기있는 목사들은 옛적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권위가 의심을 받을 때 분이 가득하여 그 기별을 사단의 기별이라고 비난하고 죄를 사랑하는 무리들을 선동하여 그 기별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헐뜯고 박해하도록 할 것이다.

그 논쟁이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어 사람들의 마음이 짓밟힌 하나님의 율법으로 향하게 되면 사단은 소동할 것이다. 성직자들은 이 빛이 저희 무리 중에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거의 초인간적 노력으로 그 빛을 막으려 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니 이 일에 로마교도와 신교도들은 손을 잡을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05~607).

세 천사의 기별의 상징

“보라 여호와와 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말 4:5)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도록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큰 개혁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무감각 상태에서 그들을 깨워 주님의 오심에 대비하도록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경고의 기별을 보내시려 하셨다.

이 경고의 기별은 계시록 14장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세 천사가 선포하는 삼중 기별이 나타나는데 그 뒤를 곧 이어 “땅의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 인자가 오신다(각 시대의 대쟁투, 311).

그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천사들의 음성은 들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 거민들과 조화를 이루어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이기 때문이다(자서전, 429).

세 천사의 기별은 삼중의 빛을 세상에 증거함으로서로 연합되어야 한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고 기록하였다. ... 이것은 최종적인 삼중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나타낸다(SDA 성경주석[화이트주석] 7권, 985).

계시록 18장에는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3중의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마침내 둘째 천사의 예고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아직도 그 바벨론 가운데 남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어서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명령이 발하여질 그 시기가 지시되어 있다. 이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하게 될 최후의 기별이요 또한 그 사업은 이로서 마쳐질 것이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살후 2:12)들이 강력한 기만을 받아들여 거짓을 믿도록 방임되는 때에 진리의 빛은 이를 받고자 마음을 열고있는 자들을 비추게 되어 바벨론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백성이 곧 거기서 나”(계 18:4)오라는 부르심에 주의하게 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390).

마지막 시대의 무력투쟁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렘 25:32)

머지않아 나라들 가운데서는 극심한 재난들-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을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어느 때 보다도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민을 통치하시는 분을 섬김으로 함께 연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으며 우리가 그분을 버리지 않을 때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이르고 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화재와 홍수로 인한 파괴는 마지막 때까지 증가할 환란의 때가 매우 가까웠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요동하고 있다(의료봉사, 136).

머지않아 우리가 예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강렬한 싸움이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은 모든 생활에 압도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때이다. 통치자들과 정치가들, 신임과 권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계층의 생각하는 남녀들은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들은 나라들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되고 불안한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요소들을 사로잡고 있는 긴장을 관찰하고 어떤 중대하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으며 세상은 엄청난 위기의 직전에 처해 있음을 깨닫는다.

은혜롭게도 유예의 기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모든 능력은 이제 무지한 가운데서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위한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일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진리는 세상의 어두운 곳곳에서 선포되어야 한다.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업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위탁되었다(리뷰 앤 헤럴드, 1910.11.17).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 가운데서 전쟁이 맹위를 떨칠 것이다. 전염병과 재난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깊은 물들이 그 경계를 범람할 것이다. 화재와 홍수로 인하여 재산과 인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하시고자하신 하늘 집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거기에는 세상의 다툼이 없고 안식이 있다(리뷰 앤 헤럴드, 1897.10.19).

우리 앞에 이른 재난의 시기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계 7:1)

힘있는 네 천사가 아직도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 두려운 파멸이 고스란히 땅에 이르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그 바람은 치명적인 전쟁을 하도록 나라들을 충동할 것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까지 사단의 두려운 세력이 맹위를 떨치지 못하도록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들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887.6.7).

시대의 징조들은 현재 하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여호와와 날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증거한다. 매일의 신문들은 미래에 있을 강렬한 투쟁의 징조들을 기록한 기사들로 가득차 있다. 대담한 강도행위가 빈번히 일어난다. 동맹과 적이 혼히 일어난다. 절도와 살인이 거의 모든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남녀들과 작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임하심이 가까웠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성령이 지금도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 태풍과 폭풍과 바다와 땅의 재난들이 신속히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징조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성취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참된 원인 이외의 다른 데로 돌린다. …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 세상에 닥칠 때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최후의 큰 파멸이 세상에 이르기 전에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기념물들이 티끌 가운데로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큰 빛을 받고도 범죄를 계속한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값비싼 내화성 건물들이 세워진다. 그러나 소돔이 하나님의 형벌의 불길에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이들 뽑내는 건물들도 재가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나는 막대한 돈을 들인 배들이 거대하고 성난 파도를 헤치고 나가려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배들은 모든 금은보화의 승선자들과 함께 물 무덤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 그러나 도처의 혼란과 흥분의 소동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사업이 있다(영문시조, 1901.10.9).

6월 17일(월)

재난의 책임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찐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 갔음이라”(계 12:12)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더 멀리 떠나감에 따라 사단이 불순종의 자녀들을 지배하도록 허락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과멸을 쏟아 놓는다. 바다와 육지에서는 재난이 일어난다. 재산과 인명이 화재와 홍수로 파멸된다. 사단은 자기가 세운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재난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로 결심한다. 사단의 대리자들은 제칠일 재림교도들을 그 재난을 초래하는 사람들로 지적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일요일의 신성성을 더럽힌다. 만일 그들이 일요일 준수를 위한 법령에 복종하도록 강요된다면 이 무서운 심판들은 그칠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901.7.16).

재난들, 가장 두렵고 가장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 파멸들은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에 유의하고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충성한다면 다른 도시들은 얼마 동안 그런 재난들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만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 거짓을 나타냄으로 여전히 같은 행위를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분별력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재난을 당하도록 하실 것이다(전도법, 27).

심판은 사람들의 죄악과 그들이 받은 진리의 빛에 따라 내려질 것이다. 만일 그들이 진리를 갖고 있다면 그 빛에 따라서 칭찬은 내려질 것이다(원고 173, 1902).

사단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해석할 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지도자들)로 하여금 땅에 가득한 재난들이 일요일을 범한 결과라고 생각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유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길을 생각하면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들을 제정한다. 그들은 가짜 안식일인 일요일 법령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고, 거짓 안식일을 더욱 더 높임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에덴에서 시작된 안식일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자신들이 불충성한 사람들이면서도 참된 안식일을 지키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불충성한 사람들로 간주한다(원고 85, 1899).

6월 18일(화)

안식일 준수자들에게 필요한 지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 10:16)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율법과 상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을 따라야 한다. 만일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들 스스로의 사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길에 거치는 돌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일요일은 전도자들이 일요일학교를 개최하여 가능한한 단순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접촉하여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성경말씀을 공부시킬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회이다. ...

현재의 일요일 준수는 시험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도록 강요하고 일요일 준수를 약속하지 않으면 자유와 생명을 박탈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런 시기는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진리가 더욱 완전히 사람들 앞에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하나님의 종들이 위대하고 귀중한 성경의 진리들, 곧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희생에 관한 진리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이 불변하고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조용히 나가 일해야 한다는 빛을 나는 받았다. 안식일은 분명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지만 우상적인 일요일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한마디 말로서도 충분하다. ...

일요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일일에 고의적으로 일해서는 안된다. ...

안식일에 관한 빛을 듣고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주장할 때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남녀들을 억압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확고히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반대와 박해가 단호히 계속된다면 그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하게 하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마 10:23)(리뷰 앤 헤럴드, 1911.4.6).

6월 19일(수)

일요일의 전도사업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 일을 계속하며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권면하시오”(딤후 4:2, 새번역)

일요일 법령에 공공연히 반항하게 되면 그 법령을 강요하고자 하는 광신자들의 박해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그대를 범법자라고 할 기회를 주지 말라. 성경책을 손에 들고 전도사업을 계속하라. 그리하면 원수는 자기가 자신의 사업을 헛되이 행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분노를 일으키는 일은 삼가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함으로서 화목하는 지혜를 깨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전도사업에 바칠 때 제칠일 재림교인들에게 모욕을 가하는 일을 즐겨워 할 독단적인 광신자들의 손으로부터 채찍이 거두어 질 것이다. ...

일요일은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이룩할 여러 분야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 날에 옥외 집회나 초막집회를 열 수 있다. 집집을 방문하는 일도 할 수 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 날을 글을 쓰는 데 바칠 수 있다.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일요일에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도록 하라. 이러한 집회들을 아주 재미있게 진행하도록 하라. 정말로 부흥적인 찬미를 부르고, 구주의 사랑에 대한 권능과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 절제와 참된 신앙적 경험에 대해 말하라. 그대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

주일 중 첫날을 준수하기 위한 법령은 배도한 그리스도교계의 산물이다. 일요일은 그리스도교계에 의해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일보다 더 높여진 교황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그 날에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반대를 피하기를 원하시는 때에 그들이 반대에 맞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아님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교회증언 9권, 232, 233, 235).

우리들 앞에는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다. 도처에서 악이 지배하는 이 시대이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자기들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 백성-하나님의 율법이 마음과 생애에 기록되어 있는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생애에 산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322).

6월 20일(목)

미국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하여짐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와 일하실 때니이다”(시 119:126)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나라(미국)에서 폐하여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입법을 실행함으로써 일요일 법령을 강요하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회들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제칠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억누르기 위한 억압적인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사람들의 종교적 특권에 대한 양심을 구속할 법령들을 제정할 때 하나님의 뜻인 율법은 우리 나라에서 사실상 폐하여질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888.12.18).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양심의 지도를 따라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피난처로 제공하신 나라, 오랫동안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던 나라, 그리스도의 순수한 종교를 보존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가 입법자들을 통하여 개신교의 원칙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함으로 로마교의 배도에 동조할 때에 최악의 사람의 마지막 사업은 나타날 것이다. 개신교들은 모든 감화와 능력을 다해서 교황권의 편을 들 것이며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국가적인 법령으로써 로마교의 횡포와 양심의 억압을 부활시킴으로 타락한 로마교의 신앙에 활기를 줄 것이다. 그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강하신 능력으로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일하실 때이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 일 후에 다 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계 18:1~5). 언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가?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이 다른 법령을 세움으로 마침내 폐하여질 때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 구이신지를 나타낼 절호의 기회이다. 사단의 세력이 천한 학문들을 요동시키고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과 능력을 보내실 것이다(영문시조, 1893.6.12).

대도시를 떠나라는 징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어다”(마 24:15, 16)

우리가 황량하고 고독한 곳에 피난처를 구해야 할 때가 멀지 않았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미국)가 교황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으로 세력을 장악하는 일은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는 대도시들을 떠날 때가 될 것인데 그 후에 산들 사이의 격리된 곳들에 있는 외딴 집들을 향해 보다 작은 도시들도 떠나게 될 것이다(교회증언 5권, 464, 465).

나는 여러 해 동안 우리의 사업을 도시에 집중시켜서는 안된다는 특별한 빛을 받아왔다. 이런 도시들에 가득한 혼란과 소란, 노동조합과 파업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상태들은 우리의 사업에 큰 장애가 됨이 입증될 것이다. 사람들은 갖가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한 노동조합의 속박 아래 두려고 애쓰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가 결코 인정해서는 안될 어떤 세력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으며 악한 자들은 태워지기 위하여 스스로를 단으로 묶고 있다(교회증언 7권, 84).

세상의 노동조합들이나 동맹들은 하나의 함정이다. 형제들이여, 그것들로부터 떠나고, 그것들을 멀리하라. ... 그것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말라. 이와 같은 노동조합들과 동맹들로 인하여 머지않아 우리의 기관들이 도에서 사업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도시들을 떠나 시골에 가서 작은 땅을 얻어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한 집을 마련하도록 교육하라. ...

머지않아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자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 투쟁과 혼란이 있을 것이다(가려뽑은 기별 2권, 142).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강요 받을 곳에 우리 자신을 두어서는 안된다. ... 일요일 준수에 관련된 위기가 머지않아 이를 것이다. ...

일요일 집단은 거짓 주장을 함으로 자신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와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대한 억압을 의미할 것이다(시골 생활, 20, 21).

환난 때의 양식과 토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마 6:34)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환란의 때에 당할 일시적인 필요를 위해 지금 준비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일임을 계시 가운데서 거듭 보여주셨다. 나는 만일 성도들이 그들 곁이나 들에 양식을 쌓아두면 그 땅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 발생할 환란의 때에 난폭한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빼앗기거나 폭도들이 그들의 밭의 작물들을 거두어 갈 것을 보았다. 그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부양하실 것이다. 나는 그 때에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 확실히 보장되어 결코 부족하거나 굶주림을 당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자녀들 중 몇몇이 식료품 값이 오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환란의 때를 위하여 양식을 사서 그들 곁에 쌓아둔 곳에 가보았으나 그것은 벌레가 먹었고 미생물들이 가득하여 이용하기에 부적합하였다(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자들, 1849.1.31).

환란의 때에 집과 토지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인데, 그 때에는 그들이 격노한 폭도들 앞에서 도망해야 하므로 그들의 소유는 현대 진리의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처분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만일 누구든지 그들 소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행하여야 할 바를 주께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서는 해야 할 바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소유를 유지하도록 허락될 것이다. 그래서 환란의 때에는 그것이 그들을 부서뜨리려는 산덩이처럼 그들 앞에 밀려 닥칠 것인데, 그때서야 그들이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나 불가능할 것이다. ...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언제, 얼마만큼 팔아야 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초기문집, 56, 57).

사단과 싸우는 마지막 대쟁투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허락이 주어진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사 33:16)(시대의 소망, 121, 122).

노동조합과 기업협동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약 5:7)

노동조합은 세계 역사 이래로 환란의 때를 이 세상에 초래케 할 기관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시골생활, 10).

우리의 모든 대도시들 가운데는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동맹으로 사람들을 단으로 묶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여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과 연합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생명은 위험 가운데 처할 것이다 (원고 154, 1902).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머지 않아 맹목적인 세력으로 임할 미래의 사건들을 위해 준비하는 일이다. 세상에는 거대한 독점기업들이 형성될 것이다. 사람들은 원수의 우리로 에워쌀 노동조합 안에서 자기들을 함께 묶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입을 취하고자 사람이 연합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형성될 것인데 이런 조합에 가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주목을 받는 인물들이 될 것이다. ...

이런 노동조합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들은 불에 태워지기 위하여 단으로 묶이고 있다. 그들은 교인들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이런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한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일은 십계명 전체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눅 10:27). ...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떻게 자기들보다 강한 계급의 사람들로 하여금 특수한 조건 이외에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들에게 속한 이익을 빼앗는 동맹들을 형성할 수 있겠는가?(시골생활, 10~12).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성되었거나 앞으로 구성될 노동조합에 결코 자신을 동여매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 이것을 금하신다.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있는 일을 보고 깨달을 수 없는가?(시골생활, 12).

매매를 못하게 함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계 13:17)

우리가 어떤 값으로도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미구에 내리게 될 것이다(교회증언 5권, 152).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시대의 소망, 121, 122).

하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공언하며 어린양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 단체들이 용의 마음을 품고 사단의 충동을 받고 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철일을 거룩히 지키기 때문에 박해의 손길을 느끼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교회증언 9권, 229).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매매를 할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묻혀진 그대의 재능들을 신속히 찾아라.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재물을 맡기셨다면 그대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라. 묻어둔 그대의 재물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주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본래 받은 것에 이자를 더하여 드리도록 하라. 이 사업이 마치고 전, 마지막 때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제단 위에 즐거이 바칠 것이다. 남녀들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큰 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업에 참여하는 일을 복된 특권으로 생각하여 지금보다 수백배나 쉽게 재물을 바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의 백성이 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타고 있다면 우리는 그와 똑같은 정신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영혼구원을 위한 사업의 종말이 얼마나 가까왔는지를 깨닫기만 한다면 그들은 초대 교인들처럼 자기들의 소유를 즐겨 희생제물로 바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다. 모아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와 그에게 드릴 재물을 얻기 위하여 재치와 기술이 발휘될 것이며 헌신적인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다(역사적 고찰, 292).

시외 거주자들이 도시의 사업을 함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고후 6:17)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로서 도시들을 떠나야 한다. 우리는 에녹처럼 도시에서 일할 때도 그곳에 살지는 말아야 한다(시골생활, 31).

우리의 기관들은 가능한 한 도시들을 떠난 곳에 자리잡아야 한다. ...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적인 혼란과 소동이 있는 도시에 정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조급하고 분주하고 시끄러움으로 모든 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시골로 이주해서 땅을 경작하고,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고, 자녀들을 천연계에 있는 하나님의 작물들과 직접 접촉시키면서 양육하기를 원하신다. 그대의 가족들을 데리고 도시들을 떠나라는 것이 나의 기별이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거나 참가하거나 간에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한다. 도시들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청년들이 이런 오염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

도시의 사업은 시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행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도시들에 경고가 발하여지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도시에 대한 경고는 도시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세상에 닥칠 일이 경고되어야 할 것이다.”(시골생활, 30).

한 나라에 죄악이 성행할 때에는 롯의 음성이 소돔에 들렸던 것처럼 언제나 경고와 교훈을 전하는 음성이 들려져야 한다. 그러나 만일 롯이 자기의 집을 악하고 타락한 도시에 두지 않았었다면 자기의 가족을 각종 죄악으로부터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에서 한 모든 일들은 그들이 그 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살았을지라도 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나 소돔에 산 롯처럼 갖가지 폭력과 죄악으로 더러워진 도시의 한 가운데 살지는 않았다(초기문집, 78).

그(에녹)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았다. ... 그는 자기와 가족을 할 수 있는대로 순결한 분위기 속에 두었다(SDA 성경주석[화잇주석] 1권, 1087, 1088).

육체적인 고통을 제거함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 10:7, 8)

위험한 시기가 우리 앞에 있다. 온 세상은 혼란과 비탄에 얽혀 들 것이며 갖가지 질병이 인간 가족을 엄습할 것이며, 건강법칙에 관하여 현재 편만하고 있는 무지는 결국 큰 고통과 구할 수 있었을 많은 생명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

종교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미국)의 자유가 전복될 때 양심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불리한 처지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회가 있는 동안에 질병과 그 원인, 예방 및 치료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느곳에서나 일할 분야를 갖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건강에 관한 권면, 504~506).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과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의료사업은 놀라운 결과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교회의 위대하신 대장께서 첫 제자들을 보내셔서 행하게 한 일과 일치되는 거룩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자들을 함께 모으신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 10:7, 8, 16).

우리가 이 성경절을 읽고 그 교훈이 우리를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준비시키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다. 초기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띠고 갔다. 하나님의 성경이 그들 앞에 길을 예비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와 같은 기별을 전하고 축복을 나누어 준다면, 집집마다 환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건강에 관한 권면, 540, 541).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제거해 주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진리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신다. 이 씨앗이 생명의 징조를 나타내기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할는지 모르나 마침내는 싹이 터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 인간은 그분의 능력의 날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이해하는 일에 얼마나 더딘가!(의료봉사, 246).

일요일 휴업령의 준수가 강요됨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마 24:9)

일요일 강제 휴업 운동이 더욱 대담하고 단호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법률의 손이 가하여질 것이다. 그들은 과료와 투옥으로 위협을 받을 것이요, 신앙을 버리도록 유혹을 받을 것이니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지위로, 어떤 사람들은 보수나 이익금으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단호한 대답은 일찌기 루터가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한 답변과 같은 답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말이 될 것이다. ... 법정에 소환된 사람들은 진리를 강력히 옹호할 것이요 그것을 듣는 자들 중에 더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방법으로는 알게 할 수 없을 무수한 사람에게 이 진리의 빛이 비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양심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역자와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눈먼 부모들은 그 믿는 자녀들에 대하여 무정하고 가혹하게 행할 것이요, 주인이나 주부는 계명을 지키는 하인을 박해할 것이다. 애정은 식어지고 자녀는 호적에서 폐적되어 그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바울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딤후 3:12)한 말씀은 문자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진리의 옹호자들이 일요일의 준수를 거절하는 때에 그들은 옥에 갇히게 될 것이며, 추방을 당할 것이고, 혹은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박해의 때에 주의 종들의 신앙은 시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만 의뢰하고 경고를 신실히 전하여 왔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 그러나 반대와 비난의 폭풍우가 그들에게 부딪치면 어떤 이들은 놀라 “우리가 말한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을 미리 알았다면 침묵을 지켰을 것일”하고 부르짖을 것이다. 그들은 곤경으로 둘러싸인다. 사단은 격렬한 유혹들로 그들을 공격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착수한 일을 성취함은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들은 파멸의 위협을 받는다. 그들을 활기있게 한 열심은 사라진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설 수가 없다. 이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전혀 무능력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분에게로 피하여 힘을 구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07~609).

개신교가 교황권과 연합함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계 17:12, 13)

우리가 마지막 위기에 가까이 이를수록 주님의 종들 사이에 조화와 연합이 있게 되는 지극히 중대한 시기가 있을 것이다. 세상은 소동과 전쟁과 불화로 가득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한 우두머리, 즉 법왕권의 세력 아래 연합할 것이다(교회증언 7권, 182).

그 나라에 이와 같은 능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린양의 성품과 정신을 가지고 하늘과 연합하였다고 공언하면서도 용의 음성으로 말하는 세력, 즉 개신교이다. 그것은 배후에 있는 세력에 의해서 움직인다(SDA 성경주석[화잇주석] 7권, 983).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거기에는 세력적인 연합의 결속, 하나의 큰 통합체, 사단의 세력의 동맹이 있을 것이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과거에 교황권이 로마교의 종교의식을 따르기를 용감히 거절한 사람들을 박해할 때 교황권에 의해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독단적이고도 압제적인 세력이 종교적인 자유, 양심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유를 반대하며 나타난다.

여호와와 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저버린 모든 타락한 세력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여 연합할 것이다. 이 싸움에서 내재 계명의 안식일은 큰 논쟁점이 될 것인데 그것은 위대하신 입법자께서 자신을 안식일 계명에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내셨기 때문이다(SDA 성경주석[화잇주석] 7권, 983).

사단은 두가지 큰 오류, 즉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기만할 것이다. 전자는 강신술의 기초를 놓으며 후자는 로마교에 대한 공감의 결속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강신술의 손을 잡기 위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제일 먼저 그들의 손을 뻗칠 것이며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해서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며 이 삼중의 연합 세력 아래서 이 나라는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가운데 로마교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588).

두 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계 13:3)

법왕권에 경의를 표하는 일은 미국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로마교의 권력을 일단 인정한 국가에서의 로마교의 영향력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영문시조, 1910.2.15).

마지막 싸움에 있어서 안식일은 모든 그리스도교계를 통하여 특별한 논쟁점이 될 것이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기 위해 연합할 것이며 약간 관대한 조치들이 실패할 때에는 가장 가혹한 법령들이 제정될 것이다. 교회의 관례와 나라의 법령에 반대하는 소수의 무리들을 관대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할 것이다. ... 구 세계의 로마교와 신세계의 배도한 개신교는 하나님의 교훈을 존경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슷한 방침을 추구할 것이다(예언의 신 4권, 444, 445).

소위 그리스도인 세계는 위대하고도 결정적인 연기가 행해지는 장소가 될 것이다. 권위자들은 교황권의 모본을 따라서 양심을 지배하는 법령들을 제정할 것이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들을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일 것이다(계 18:3~7인용)(SDA 성경주석[화이트주석] 7권, 949).

셋째 천사의 경고(계 14장)는 ... 공중을 날아가는 한 천사에 의해 큰 소리로 전파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세상의 주목을 끌 것이다.

쟁투의 결과로 온 그리스도교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의 두 부류로 나누일 것이다. 비록 교회와 국가가 그 권력을 다하여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그것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밋모의 선지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계 15:2, 3)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각 시대의 대쟁투, 450).

많은 음성들로 혼란을 일으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

세상을 경고하는 마지막 사업에서 교회들에게 분명한 두가지 기별을 준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는 것이다. 또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음성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다음과 같은 외침이 들린다.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리뷰 앤 헤럴드, 1892.12.6).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바벨론에서 불러내신다. ...

진리가 모든 나라에 증거되기 위하여 선포된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각종 악의 세력이 활동할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은 다음과 같은 많은 음성들로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이것이 진리이다. 내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이 있다. 하나님께서 큰 빛을 주어 나를 보내셨다.” 그 때 경계표를 옮기는 일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기둥들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거짓 안식일을 높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을 대치함으로써 하나님께 치욕을 끼치기 위해 더욱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 거짓 안식일은 가혹한 법령에 의해 강요될 것이다. ... 그러나 사단이 거짓 이적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계시록에 예언된 때는 이루어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할 강한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선포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떠나도록 호소할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892.12.13).

언제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가?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의 법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지는 때이다. 그 때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낼 절호의 기회이다. 사단의 세력이 세상을 혼란시키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빛과 능력을 보내실 것이다(영문시조, 1893.6.12).

잃어버린 은전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아마 장난감이나 책, 안식일 교과 책을 잃어버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찬장과 침대 밑, 또는 책꽂이를 뒤져본 적도 있겠지요, 하지만 찾지 못해서 예수님께 기도해서 물건을 찾은 경험 또한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옛날에 은전 열 닢을 가진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닢의 은전을 잃어버렸어요,

여인은 은전을 잃어버려 슬펐어요,

왜냐하면 그 은전들은 오래 전에 어머니가 주신 것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여인의 집은 어둡고 창문도 없었기 때문에 은전을 찾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양초에 불을 켜서 집 이곳저곳을 살폈어요,

서랍 안에도 찾아보고, 책상 위와 호주머니, 또 양탄자 밑까지도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은전은 없었어요,

은 집안을 부지런히 쓸고 난 후에야 겨우 은전을 찾을 수 있었지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을 때, 감사한 마음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아시나요?

이 여인 역시 기뻐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고 말했어요,

"어서들 오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기뻐하세요, 오늘 제가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이 죄에서 돌아오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년이나 소녀, 얼마나 아빠, 혹은 어떤 어른이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늘의 천사들은 금 거문고를 연주하며 하늘 합창단과 함께 기뻐하며 노래를 부를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와 잃어버린 은전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 하시는지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도우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